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5763.22	코스닥	1143.48
	(-161.81)		(-20.90)
금리 (연고채 3년)	3.329	환율 (원/달러)	1501.30
	(+0.068)		(+18.20)

metro® 경제

리사 수 만난 노태문
삼성-AMD
디바이스 확장 '신호탄'
04



BTS(방탄소년단)의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홍보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랏빛’ 광화문... 경제효과 2650억

BTS 완전체 컴백 D-1

군복무 이후 4년만의 무대 유통업계 ‘BTS 특수’ 기대 인파 26만명 공연 몰릴 듯

4년여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BTS노믹스’로 들쭉날쭉하고 있다. 항공과 호텔 등의 관광 수입부터 식품·뷰티·유통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제효과는 2650억 원에 달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일찌감치 마케팅을 시작하고, 상품 재고를 확보하는 등 ‘BTS 특수’를 누릴 준비에 나섰다. <관련기사 L1·L2면>

19일 유통 및 공연 업계 등에 따르면 BTS는 20일 새 앨범 ‘아리랑’을 발매하고, 21일 서울 광화문 라이브쇼를 통해 공식 컴백 무대를 가진다. 이를 기점으로

는 4월부터는 5개 대륙 34개 도시를 도는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만에 BTS 완전체를 볼 수 있는 무대여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공식 활동인 만큼 약 26만명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각) 광화문 공연 당일, 항공, 숙박, 음식, 유통, 굿즈 등이 만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1억7700만달러(약 265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 내 회당 평균 효과(약 700억 원)를 3배 이상 상회하는 규모다.

유통업계 BTS 특수는 이미 시작됐다. 공연장인 광화문광장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포시즌스, 더 플라자, 웨스틴 조선 서

울, 롯데호텔 서울 등 주요 5성급 호텔들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다. 광화문 일대 비즈니스 호텔의 평균 객실가도 평소 대비 2~4배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모두 BTS와 아이미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3~15일 명동점 K팝 특화 매장인 ‘K-웨이브 존’의 BTS 굿즈 매출이 전주 대비 190%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렸던 지난 14일에는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20일부터 공식 팝업스토어를 운영, 새 앨범 아리랑 전시는 물론 공식 응원봉 판매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명동 본점과 에비뉴엘 외벽을 아이미의 상징색인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도 발빠르게 나섰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

의점들은 광화문 인근 점포의 생수, 도시락, 핫팩 등 상품 재고를 확보하고, 인력 배치도 대폭 늘리는 등 아이미를 준비에 나섰다. AI 통역 키오스크나 외국어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명동과 광화문 일대 뷰티 매장이 역시 공연 기간 ‘관광 상권 전용 제품군’을 강화하고, 한정판 제품 출시하는 등 외국인 고객 잡기 마케팅이 돌입한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BTS 공연 기간동안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 쇼핑이 아닌 K-컬처에 대한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BTS노믹스 효과가 유통 전반으로 번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美, 기준금리 동결... 추가인하 ‘신중’

연준, 연 3.50~3.75% 유지
파월 의장 “중동 공급 차질에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밀어올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금리 경로도 유지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회의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은 중동발 유가 충격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거둬들여 경계하면서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 0.25%포인트(p) 인하 소수의 견을 냈다.

정책결정문에는 노동시장 관련 문구가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에서 “최근 몇 달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로 변했다.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함께 공개된 경제전망요약(S



EP)에서는 성장과 물가 전망이 모두 상향됐다.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2.3%에서 2.4%로 높아졌다.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과 근원 PCE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5%에서 나란히 2.7%로 올라갔다. 다만 올해 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3.4%로 유지돼, 연준은 올해 1회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경로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와 투자를 바탕으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재화 부문 인플레이션이 관세 영향으로 높아졌고, 중동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이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metro

에너지 시설 타격 ‘전쟁 확산’... 세계경제 요동

이란, 카타르 가스시설 공격
세계 LNG 20% 담당하는
قطر ‘확전 재제’ 메시지
브렌트유 107달러, 3.8% ↑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거대 가스전 가운데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 시설

을 공격하자, 이란이 전세계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의 20% 가량을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시설 밀집지역 라스라판산업단지에서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등 ‘선을 넘는 전쟁’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까지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에 대해 본인은 몰랐으며 ‘확전 자

제’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발표해 양국 간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세계 경제는 이날 요동쳤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증가의 경우 18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 브렌트유는 증가 산출 이후 상승폭을 더 키워 한국시간 19일 오후 2시20분 현재 배럴당 112.07

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가 가장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이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7.13달러를 나타냈다. 전장 증가(배럴당 96.32달러)보다 추가로 소폭 올랐다.

/윤휘중 기자 yhj@metr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전한길 “보수우파 분열 가져올 뿐...국힘에 남아서 싸우기로 결단”
▲국힘 “공소청·중수청, 李 정권의 사냥개 역할 할 것”...규탄대회 /사진 뉴시스

▲민주당 등 6개 정당 만난 우원식 “국힘도 개헌 논의 동참해 주길”
▲“커퍼 더 달라, 부식 부실하다”...尹, 교도관 면담서 불만 쏟아내

▲나경원 “정치 사라지고 ‘떼법’만 남았다”...민주당 입법 폭주 비판
▲국힘 부산 의원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말고 특검 심판대 서야”

호르무즈 해협 선별적 봉쇄 국면 3주 이상 지속뎌 생산비 5.4% ↑

산업부, 중동사태 국내 영향 분석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 평가
3개월 이상 지속시 생산비 11.8%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선별적 봉쇄 국면에 들어 서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에 비용 상승과 공급망 충격이 동시에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나프타·헬름·무수암모니아 등 핵심 산업 원자재까지 영향을 받는 '복합 위기' 양상이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가 약 3주간 지속되는 단기 시나리오에서도 한국 제조업 생산비는 5.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구조적 충격 시에는 최대 11.8%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단기 공급 충격 시 유가가 배럴당 105~125달러, LNG 가격은 60~9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13개월)에는 유가 120~160달러, 장기적으로는 150~180달러(극단적 경우 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직접 압박한다. 특히 석탄·석유제품과 전력·가스 부문은 생산비 상승률이 각각 최대 83.0%, 77.7%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비용 상승은 화학·금속·운송 등 연관 산업으로 연쇄 확산되는 구조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은 직접적인 에너지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핵심 원자재의 물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제 충격은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공급 차질 시 에틸렌·프로필렌 등 전방 산업 전반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헬름은 LNG 생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며, 무수암모니아는 비료와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다.

이들 품목은 모두 중동 에너지 생산·정제 인프라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호르무즈 봉쇄로 원유·LNG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동시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에너지 위기가 곧바로 산업 원자재 위기로 전이되는 '이중 충격 구조'가 형성된다는 의미다.

실제 중동 주요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이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일부 파이프라인 우회 수출이 가능하지만, 처리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사실상 전량을 호르무즈에 의존

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LNG 수출의 90% 이상이 해당 해협을 통과한다. 특히 LNG는 원유와 달리 대규모 비축이 어려워 공급 차질이 곧바로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병목 구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이번 위기를 언제든 반복되는 구조적 리스크로 평가했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구조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원 역시 생산 과정에서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원료 조달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유·LNG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넘어 나프타·헬름·무수암모니아 등 연계 산업재까지 포함하는 '통합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너지와 산업 원자재의 리스크가 동시에 상승하는 만큼,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략 품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결국 미국의 미국 안보우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산 분야 협력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선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이란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시세가 요동치고 있는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국제유가 벤치마크 브렌트유 선물, 원·달러 환율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스

李 “경제 전시상황… 추경, 빠르게 처리”

▶ 1면 ‘에너지 시설 타격…’서 계속

여기에 제롬 파월 Fed 의장의 통화긴축 선포 발언까지 겹치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8일(현지시간), 전장보다 768.11p(1.63%) 내린 4만6225.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91.39p(1.36%) 떨어진 6624.70, 나스닥종합지수는 327.11p(1.46%) 하락한 2만2152.42에 장을 마쳤다.

아시아의 주요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66.87포인트(3.38%) 내린 5만3372.5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장중 한때 20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10%), 선전종합지수(-1.67%), 홍콩 항셱지수(-1.

84%) 등도 하락세다.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찍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9원 오른 1501.0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10일(1511.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 양상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침과 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윤휘중 기자 yhj@

금융위, 은행·여전 등 업권별 리스크 대비

금융산업 영향 점검… 장기화 대책논의

금융위원회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업권별 리스크를 점검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19일 ‘업권별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리스크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장기화 대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시장은 중동사태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환율이나 채권금리 상승 등이 업권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13.59%로 규제비율(8%)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규제비율 80%)도 지난해 2분기 152.7%에서 지난해 말 168.9%로 확대됐다.

보험은 키스(K-ICS)비율이 지난해 2분기 206.8%에서 같은해 3분기 210.8%로 상승했다. 지난해 3월 기준 100% 이상이 법적기준이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는 만큼 충분히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또 국내 금융회사의 중동

지역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환율·금리·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일일 점검한다. 또한 유가 민감 업종(정유·석화·항공 등)의 익스포저를 지속 점검하고, 업종의 수익성 악화 및 신용등급 하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여전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채권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들은 은행 차입과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 대체 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의 국내 기업·선박 보험가입 현황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적으로 달라진 국내 금융산업·시장 환경을 고려 자본비율, 연체율 등 외형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자금 유입 확대가 수신포에 미치는 영향 등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종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metro

구윤철 “환율 대응 등 시장안정 조치 총력”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주제
“유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

정부는 환율이 국가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경제의 기초 체력)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인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



구윤철(왼쪽 3번째)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금년 2분기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4월 개시 예정인 WGBI(세

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인프라와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美 IRA 재편·중국산 규제 강화... 국내 태양광 실적반등 기대

미국 IRA로 자국 생산 우대 강화 중국산 규제에 북미시장 재편 가속 한화솔루션, 조지아 솔라허브 가동 OCI홀딩스, 비중국 공급망 구축 완료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미국 정책 재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 불안과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안보 대응 수단으로 태양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중동 분쟁 역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책 변화 역시 시장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제품에 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양상이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중심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실적 반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향 태양광 제품 통관 이슈가 해소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조지아주 태양광 통합생산단지 '솔라 허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3.3기가와트(GW) 규모로 잉곳·웨이퍼·셀·모듈까지 이어지는 생산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잉곳 양산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셀 양산까지 확대되면 IRA에 따른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OCI홀딩스는 비중국 공급망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4월 베트남 웨이퍼 법인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의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베트남 웨이퍼, 미국 셀·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완성된다.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테라 서스기동률은 90%를 웃돌고 있으며 북미 고객사와의 추가 공급 계약 논의도 이

어지고 있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공급 안정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적 역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OCI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7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미국 시장에서 형성된 비중국산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관세·쿼터)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섹션 232)' 발표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비중국 폴리실리콘의 시장 지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 변동성과 화석연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 등 연료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전, 서해안 재생에너지 잇는 HVDC망 착수

새만금~수도권, 2030년 준공 추진 서해안 전력 수도권 보내는 핵심망 해저 송전 확정... 2038년 순차 완공

한국전력이 서해안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한전은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1단계인 새만금-수도권 구간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로 송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총 4개 HVDC 송전망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전체 사업은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3월 초 해저케이블 경로 지 설계에 착수했으며, 앞서 8개 변환소 부지 선정도 마쳤다. 특히 경제성·시공성·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송전망을 해저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 HVDC 건설에는 9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전은 공정 혁신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기를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2년 이상 걸리던 기본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해저케이블 공사를 발주해 시공에 조기 착수한다.

또 기존에는 계약 이후 수행하던 해양 조사를 한전이 선제적으로 진행해, 케이

블 제조사가 계약 즉시 생산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시공 기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어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한전은 어민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국내 케이블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전은 제조사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대형 포설선박 등 핵심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 전력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미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 준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가운데)이 18일 경남 진주 본사 회의실에서 비상경영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동발전

남동발전, 수익구조 악화 선제 대응

비상경영전담조직 출범

SMP 하락·연료비 변동성 확대 비용 절감·효율화로 흑자 전환 추진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과 전력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수익성 악화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긴축·효율'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경영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TF 출범은 최근 전력시장 핵심 지표인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연료비 등 원가 변동성까지 확대되며 수익 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남동발전은 이에 따라 기존 경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 10대 개선과제도 마련했다.

핵심 전략은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다. 발전설비 이용률을 높여 전력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료를 보다 경제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고장비 절감을 통해 전사적인 비용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경영 TF는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총괄하며 ▲전력매출 ▲연료비 ▲고장비 ▲투자사업 관리 등 4대 핵심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도출해 이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영 정상화 속도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은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하고 수익성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전 최우선 경영의 가치를 지키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연준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 더 높아져"

>> 1면 '美 기준금리 동결... '서 계속

그는 "중동 사태의 경제적 파급 범위와 지속 기간은 아직 예단하기 이르며, 향후 금리 조정은 들어오는 지표와 변화하는 전망, 위험 균형을 보며 회의마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시장이 이번 회의를 전반적으로 패파적으로 해석했다"고 정리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소수의견이 1명에 그쳤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조정된 데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경계와 유가 충격의 파

급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연방기금금리 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내 인하폭 전망은 26bp에서 13bp로 줄었고 미국 국제금리는 상승, 달러는 강세, 주가는 하락했다. 다만 점도표가 올해 1회 인하 전망을 유지한 점 자체는 비교적 완화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었다.

유상대 부총재가 주재한 이날 TF 회의에서 한은은 이번 FOMC 결과로 연준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전개 양상과 금융·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4월 금융통화위원회도 인하보다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준이 금리 경로 자체는 유지했지만 물가 경계와 대외 불확실성을 재확인한 데다, 한은 역시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지속을 언급한 만큼 당장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대외 여건과 물가환율 흐름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다. /김주형 기자 g471@

노태문, 리사 수 회동... 삼성-AMD, 디바이스 확장 '신호탄'

MX사업부 핵심 임원, 수 CEO 맞이
AI 기반 디바이스 전략·협력 논의
AMD CPU 적용 확대 여부 '주목'
AI 밸류체인 전반 확장 가능성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회장에 이어 노태문 사장까지 잇따라 만나며 삼성전자와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반도체 중심이던 양사 협력이 모바일·PC 등 디바이스 영역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노 사장과 만나 인공지능(AI) 기반 디바이스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 CEO는 회동에 앞서 "논의할 주제가 많다"며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삼성전자 측에서는 김정현 부사장이 사옥 로비에서 수 CEO를 맞이했다. MX사업부 핵심 임원이 직접 영접에 나선 점에서 이번 회동의 비중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오른쪽)와 김정현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 부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만남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삼성전자 디바이스 사업을 총괄하는 MX사업부와 AMD 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AI 기능이 강화된 PC와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양사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AMD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뿐 아니라 중앙처리장치(CPU) 분야에

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기존 반도체 협력을 넘어 삼성전자 디바이스 제품군 전반으로 협력 축이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 노트북과 PC 제품군에서는 인텔 CPU 비중이 높은 구조인 만큼, AMD 적용 확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수 CEO는 전날 서울 한남동 승

지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갖고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 등 반도체 사업 핵심 경영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당 만남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포함한 AI 메모리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차세대 HBM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반도체 협력 논의에 이어 이날 디바이스 부문까지 접촉이 이어지면서, 양사 협력 범위가 삼성전자 전 사업부로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용 반도체에서 시작된 협력이 AI PC와 모바일 기기로 이어질 경우, 양사 협력은 AI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경쟁 구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AMD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삼성

전자와의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경우 메모리부터 디바이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축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에 대응하는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수 CEO는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만나 AI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국내 AI 기업과 접점을 넓히며 생태계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이후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회동을 마친 뒤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과도 만나 AI 산업 협력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업을 넘어 정부까지 접촉 범위를 넓히며 AI 생태계 전반을 점검하는 행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반도체 협력의 연장선이 아니라 디바이스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확장"이라며 "삼성전자와 AMD 간 협력이 AI 시대 핵심 공급망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마이크론 HBM4 양산에도... 삼성·SK, 주도권 이어간다

마이크론 매출, 사상 최대·3배 급증
HBM4 양산 출하로 경쟁력 논란 일축
삼성·SK,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집중
단순 생산 확대보다 수출 확보 중요

마이크론이 호실적과 함께 HBM4 양산에 나서며 시장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여전히 주도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업계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기술 경쟁력 입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HBM 시장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6%인 238억 6000만달러(한화 약 35조 5000억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서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시장조사업체 L

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200억 70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통상 마이크론의 실적은 메모리 산업 특성상 업황 개선과 가격 상승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된다.

여기에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발표를 통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용 HBM4 12단 36GB 제품의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기술 경쟁력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형성됐던 HBM4 시장 구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마이크론의 HBM4 시장 진입에도 기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숨겨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AMD와 협약을 통해 HBM4 우선 공급업체로 선정됐으며 자사의 HBM4를 AMD의 최신 AI 가속기 '인스טי트 MI455X' GPU

에 탑재하기로 했다. MI455X는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AI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장치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1c D램 및 4나노 베이스 다이 기술 기반의 HBM4를 통해 AMD의 AI 모델 학습과 추론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최대 13Gbps 속도와 3.3TB/s 대역폭을 앞세워 성능 기준 자체를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개최된 AI 콘퍼런스 'GTC 2026' 기조연설에서 "그록3 LPU를 처음 공개한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칩을 제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생산 단계에 들어갔고 올해 하반기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 범위가 HBM에 이어 파운드리까지 확대됐음을 시사했다.

SK하이닉스 또한 HBM3와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핵심 파트너로 잡은 만큼 HBM4 기술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GTC2026에서 HBM4를 공개하는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노정 SK하이닉스 CEO 등이 직접 현장을 찾은 등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 통해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을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22%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HBM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단순 생산 확대보다 수출 확보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며 "생산능력 증가 속도에 맞춰 안정적인 수출을 확보한 업체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KF-21.

/KAI

韓 전투기 'KF-21' 인도네시아 첫 수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처음 수출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말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측 간 KF-21 수출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이후 최종 금액 조율을 거쳐 상반기 중 본격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물량은 16대다. 다만 이번 도입 물량에 현지 생산 방식이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KF-21 체계개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공동개발국이다. 당초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고 기술 이전을 받아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분담금 납부 문제와 기술 이전 범위, 인도네시아 측 연구원들의 기술 유출 논란 등이 겹치며 양국 협의는 진통을 겪어왔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F-15EX 도입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해당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다시 KF-21 도입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KF-21은 4.5세대급 중형 초음속 전투기로, 총 16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작전반경은 1000km 수준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전사적 AI 활용... 신사업·신제품 개발"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우태희 대표이사, 책임경영 등 강조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책임경영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혁신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강조했다.

우 대표이사는 19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제8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활용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전사적 AI 활용 역량과 실행 기반을 강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AI 기반 신사업·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전력기와 에너지 송배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해 왔다.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등 핵심 전력기 분야에서 기술 완성도와 공급 이행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안정적인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우 대표이사는 "지난해는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계기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 인프라의 적기 공급 능력과 품질 경쟁력이 중요해진 시기였다"며 "장기 주주 산업 특성상 원가 변동과 납기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과 직결되는 환경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력기 사업에서는 주주 경쟁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

지를 확대했다. 건설 부문에서도 국내외 건설 경기 둔화와 원가 상승,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와 선별적 수주 전략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유지했다.

이 같은 성과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5조 9685억원, 영업이익 7470억원을 기록했다.

우 대표이사는 "앞으로의 경영 환경 역시 글로벌 경기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천 중심의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경영과 재무 전략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조직의 실행력을 높여 목표 달성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

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경영 효율을 높여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보통주 1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이 확정됐다. 정관 일부 변경 안건 가운데 '제2-2호 그 외 정관변경의 건'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박종배 사외이사 선임 건은 폐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주주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안건을 재검토해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이 대통령 “수도권과 불균형”… 추경 지방 우선 지원 강조

불균형 확대시 경제 안정성 하락
민생·기업들 피해 최소화 지시
“경제 전시 상황” 신속 편성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8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가 생명”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전쟁 추경’인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

며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준하게 기울여나가야 한다”며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급 조달 확대, 또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와 이에 덧붙여서 투자와 연구, 교육 분야에 걸쳐서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공급 약속을 받아 온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격려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급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자,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기에 강 실장이 큰 성과를 거뒀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또 “비행 중에 피해를 볼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오셨다. 표창이라도 하나 드려야 하겠다”라며 웃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출범… 일자리 대응 논의

노사정, ‘노사적 공동선언’ 발표
의제 맞는 본위원회 17명으로 구성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가동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8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오전 청와대 총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넘어 ‘사회적 대화 2.0’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사회적 대화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시스템 재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최종심의 의결을 맡는 본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 측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간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1개의 특별위원회와 5개의 의제별위원회, 1개의 업종별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에서 각종 노동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등이 지난 2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리 양극화 해소 등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위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은 직접적인 의제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정년연장 논의가 해법을 설계하는 형태의 논의 과정이라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인구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자리”라며 “논의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의제별위원회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발전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가 운영된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AI다.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등으로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일자

리 변화 대응,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위원회’가 발족된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여수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다른 지역 특화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 직후에는 이 대통령이 참여한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는 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과 기업의 시각으로 본 양극화 진단 및 해소 방안을 발표했고, 이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서예진 기자

당정 “플라스틱 공급·가격 안정 필요”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조달청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원유 공급 불안으로 화학 기초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대기업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나프타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합성수지 공

급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간담회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합성수지를 공급받지만 납품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모든 손실을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플라스틱 제조기업은 원가의 80%가 원재료”라며 “원가 급등과 납품단가 미반영 사이에서 이른바 ‘샌드위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채정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전쟁 이후 1톤(t)당 20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과 함께 공급 물량 조정이 이뤄졌고, 추가 인상과 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통보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플라스틱 공급 안정 ▲가격 급등 방지 ▲원자재 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뉴시스

“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혁신 추진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본시장을 혁신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신뢰·주주 보호·혁신·시장 접근성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운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그 가능성이 실현으로 이행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원인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늘 민주당 정부 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정상화와 민생 금융 지원

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또 “저평가 주가를 정상화하고,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며, 쪼개기 상장과 중복 상장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도 바로잡겠다”며 “아울러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통해 우량 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장기 투자 기반도 두텁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정상화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공정한 합병거래 산정과 의무공개대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보험업계, CSM 확대 총력전... '지속 가능성' 승부 가른다

(보험계약마진)

금융당국, 핵심 계리가정 점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를 적용

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과 보장성 상품을 앞세워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 체제에서 CSM은 보험사가 보유 계약을 통해 앞으로 벌어들이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뜻하는 핵심 지표다. 금융당국이 손해를·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점검에 나서면서 올해 보험업계의 승부는 CSM의 '양'보다 '질'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생보사 실적 보면 건강보험과 보장성 상품을 앞세워 신계약 CSM을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손익의 기초체력을 방어하는 전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신계약 CSM은 3조59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높아졌다. 건강보험이 더는 보조 상품이 아니라 CSM 확대의 핵심 전장으로 올라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업계 CSM 이미지.

삼성생명 작년 신계약 CSM 3조 건강보험 비중 75%, 17%p 상승
KB라이프 작년 말 CSM 3.3조 신계약 5047억, 0.7%p 상승 그쳐
한화생명 3년째 CSM 2조 넘겨 보장성보험 CSM 비중 96% 달해

섰다는 의미다. 대형 생보사가 건강보험 중심으로 미래의 재고를 쌓는 전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삼성생명은 "고수익 건강상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신계약 CSM 3조595억원을 달성했다"며 "순수건강 중심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건강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KB라이프도 같은 흐름에 올라타 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말 CSM은 3조2638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KB라이프는 건강보험 시장 진출과 CSM이 높은 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반면 신계약 CSM은 5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 중심 전략이 CSM 잔액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신규 유입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한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한화생명 역시 건강보험과 보장성보험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계약 CSM은 2조663억원으로 3년 연속 2조원을 넘겼고, 보장성보험 CSM 비중은 96%에 달했다. 건강보험 CSM은 1조249억원, 건강보험 수익성 비율은 15.9배로 개선됐다.

다만 신계약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유 CSM은 할인율 강화와 교육세 인상, 계리가정 조정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신계약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못지않게, 그 숫자가 회계·계리 변수 변화에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중요해진 셈이다.

문제는 금융당국도 바로 이 지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담보에는 보다 보수적인 손해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1일 보험부문 업무설명회에서 핵심 계리가정인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계리감리 강화 등을 예고했다. 보험사가 CSM을 쌓는 방식 자체보다, 그 숫자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하며 보수적인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누가 더 많은 건강보험을 팔아 신계약 CSM을 쌓느냐가 전면에 섰다면, 앞으로는 그 CSM이 얼마나 검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숫자인지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판매 드라이브가 이어지더라도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공격적으로 잡는 방식의 외형 경쟁은 점차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유계약 CSM은 시점마다 가정을 다시 반영해 계산하는 구조여서 단순 증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결국 CSM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보다 그 숫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은행·신보, 소상공인 지원

작년 국내은행 순이익 24.1조 '역대최대'

금감원, 2025 국내은행 영업실적
시중·특수은행 중심 매출성장 지속
일반은행 15.2조, 특수 7.8조 기록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했다. 시중은행·특수은행 중심의 매출 성장이 지속됐으며, 지방은행 매출은 제자리걸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국내은행의 총 당기순이익은 총 2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16조2000억원을, 특수은행은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일반은행 가운데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이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6조2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록했고, 인터넷은행이 직전 연도보다 1000억원 늘어난 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행은 전년보다 300억원 줄어든 1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소폭 역성장했다.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9%로 집계돼 전년도(0.58%)보다 소폭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93%로 0.17%포인트(p) 성장했다.

매출 항목별로는 이자이익이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60조4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57%에서 1.51%로 0.06%p 하락했지만, 이자수

익자산 규모가 3290조2000억원에서 3442조원까지 늘어나며 총 이자이익은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규모는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조6000억원을 기록해 가파르게 늘었다.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자율·통화위험회피목적 거래 관련 파생상품 이익이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늘어나며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유가증권관련이익은 전년 대비 57.3% 감소했다. 예금보험료·공공기관대출료 등비용도 늘었다.

판매비 및 관리비는 전년보다 2조원 증가한 2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인건비가 1조4000억원 늘어나며 비용 상승의 주된 이유가 됐고, 임차료·연구비 등 물건비도 6000억원 늘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2000억 규모 안심통장 대출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 대상

하나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이 1년 초과한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손님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

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전액 면제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 신청 손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19일(1,6), 20일(2,7), 23일(3,8), 24일(4,9), 25일(5,0)에 해당하는 손님이 대상이며, 3월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손님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비상금 자금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더 많은 개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륜차 번호판 더 잘보이게 바뀐다

국토부, 오늘부터 전국 단일번호 체계

이륜차 번호판이 더 커지고 또렷해진다. 전국 단일 번호 체계가 도입되면서 불법 운행 단속과 교통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난 가운데 기존 번호판은 무인 카메라 단속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 등 지역



이륜차 전국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번호판 제작소에서 관계자가 새롭게 도입된 이륜차 번호판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

명이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사라진다. 번호판 디자인도 바뀐다. 기존보다 세로 길이가 늘어나고, 글씨 색상은 형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KB국민은행 장병적금 금리혜택 강화

KB국민은행은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주요 우대금리 항목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최고 우대금리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KB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월 3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14개 은행을 합산한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우대금리 항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 ▲KB국민카드(신용/체크/BC) 결제대금 출금 실적 보유 등을 상향 조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최대 1000만원... 5년 연장 가능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안심통장 3호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신청은 1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 승인 후 우리은행 모바일 앱 '우리WON 기업뱅크'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후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오는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준석 우리은행 소호사업부 부장은 "서울형 안심통장 3호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철강업계, 신소재 분야 무게이동 해상풍력·원전용 강재 등 수요 선점

동국제강 GFRP 보강근 생산·판매 포스코 전기차·에너지 소재 확대 현대제철 저탄소 고부가 제품 주력

국내 철강업계가 건설·조선 중심의 범용재에서 신소재와 전기차·에너지향 소재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철근 대체재를 직접 생산하는 한편, 전기강판과 해상풍력·원전용 강재까지 제품군을 넓히며 새 수요 선점에 나서는 흐름이다.

19일 동국제강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FRP) 보강근을 생산·판매 중이다. 철근 중심 사업에서 신소재로 제품군을 넓히는 전략으로, 향후 철강 구조재와 연계한 시너지 영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GFRP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이는 철근 대체 보강재로, 염해 환경에서 구조물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어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다.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교량과 철도 궤도 등에 적용되며 사용성이 검증됐고, 최근 관련 국가 기준도 마련됐다. 인도 푸네 소재 인피니티 마켓 리서치는

글로벌 GFRP 시장이 지난해 615억 5000만달러에서 오는 2031년 956억 5000만달러로 성장(CAGR 7.6%)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국제강은 포항공장에 GFRP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지난해 3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내진용·극저온용·코일 철근 등 신규 제품 개발도 병행하며 철근 사업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범용 철강에서 전기차·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제품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 생산 확대가 대표적이다. 광양제철소 Hyper NO 공장 증설을 통해 전기강판 생산능력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출은 지난해 63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전기강판 수출도 72만2400톤으로 19.1% 늘었다.

자동차강판과 저탄소 생산 기반 확충도 함께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중국 하북강철과의 합작을 통해 연간 90만톤 규모 자동차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했

고,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개소와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 착공으로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납품 실적과 인증을 바탕으로 에너지·저탄소향 고부가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21년 현대중공업에 9% 니켈(Ni) 후판을 공급했고, 2023년에는 H형강 저탄소 제품 인증과 울산공장 DNV 해상풍력 공장 인증을 확보했다.

2024년에는 세아제강과 해상풍력용 탄소저감 후판 공동 평가에 성공하고, 현대차와 탄소저감 열처리 기술에 대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원자력 소재 공급사 품질시스템 인증(ASME QSC)까지 확보하며 해상풍력·탄소저감·원자력 분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조선·자동차 중심이던 철강 수요가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면서 해상풍력, 방산, 데이터센터 등으로 적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업계 흐름”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19일 서울 광진구 복합 문화공간 파이 팩토리(PIE Factory)에서 열린 ‘2026 포르쉐코리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되는 포르쉐 준대형 전기 SUV ‘카이엔 일렉트릭’을 배경으로 포르쉐 AG 해외 신홍 시장 총괄 크리스티아네 초른(왼쪽)과 포르쉐코리아 마티아스 부세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올해 10종 이상 신차 출시”

간담회에서 ‘가치 중심 성장’ 전략 소개

포르쉐코리아가 올해 1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고 전동화 리더십 강화와 스포츠카 중심의 전략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가치 중심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질적·양적 성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르쉐코리아는 19일 서울 광진구 파이 팩토리에서 ‘2026 포르쉐코리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티아스 부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과 함께 크리스티아네 초른 포르쉐 AG 해외 신홍 시장 총괄 부사장이 방한했다.

초른 총괄 부사장은 한국 전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 맞춤형 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그는 “향후 국내 도입 모델에 모두 국산 업체의 배터리 셀을 탑재할 것”이

라며 “한국의 배터리 기술 선도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에 1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신형 911과 마칸 GTS를, 하반기에는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와 카이엔 일렉트릭 등을 선보이며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한다. 특히 카이엔 일렉트릭은 전동화 SUV 전략의 핵심 모델로, 터보와 기본형, 카이엔 S 일렉트릭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 레이스 헤리티지와 개인화 철학을 결합한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 제품은 한국 고객만을 위해 100대 한정으로 특별 제작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AI 냉장고가 식재료 관리해드려요”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출시 제미나이 연계 냉장고 내부 관리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화된 식재료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도화된 AI 기능이 적용돼 식자재 관리가 더 편리해졌으며, 음성 인식 제어 기능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으로 상황에 맞춰 최적의 냉각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구현했다.

이번 신제품은 생성형 AI ‘구글 제미나이’와 결합돼 식품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된 ‘AI 비전’이 탑재됐다. ‘AI 비전’은 냉장고 내부 카메라를 통해 식재료를 인식하는 기능으로, 기존에는 신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 /삼성전자

선식품 37종과 가공·포장 식품 50종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인식 가능한 식품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식품 종류의 개수 제한없이 다양한 신선·가공 식품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포장 식품이나 사용자가 식품을 담은 용기에 직접 적는 라벨의 내용까지 인식해 자동으로 푸드리스트에 등록한다.

신제품은 인식된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추천까지 차원이 다른 식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AI 푸드매니저’도 지원한다.

상황과 사용 패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도 적용됐다. ‘하이브리드 쿨링’은 평소에는 컴프레서를 단독으로 운전해 냉각하고,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강력한 냉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함께 작동시켜 최적의 냉각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신제품은 32형 대형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프리스탠딩 모델과 9형 터치스크린에 키친핏 맥스 디자인을 갖춘 키친핏 타입의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프리스탠딩 타입이 584만원, 키친핏 타입이 464만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확보

몰텐과 메탄가스 활용 원료개발 MOU

포스코퓨처엠이 메탄가스를 활용한 비제갈 방식으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확보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 몰텐(Molten)사와 메탄가스를 활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산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흑연 원료 확보 방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자사의 음극재 기술과 몰텐의 메탄가스 기반 흑연 생산 기술을 결합해

음극재 원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몰텐이 메탄가스를 열분해해 흑연을 생산하면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자회사 퓨처그래프를 통해 구형흑연으로 가공하고 세종 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재로 생산할 계획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기존에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흑연에 의존해왔으나 양사가 보유한 원료·소재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핵심 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원료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비용 절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오션-오넥스그룹, 전략적 협력 협약

그리스 조선·방산사업 수주 ‘청신호’

한화오션은 그리스 최대 조선·방산업체인 오넥스(ONEX)그룹과 ‘그리스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참석했다. 행사에는 여성철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사장과 파나기오티스 제노코스타스 오넥스 대표, 루카스 초코스 주한 그리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오션과 오넥스

그룹은 그리스 해경과 해군이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 등에 상호 독점적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지중해와 흑해는 물론 그리스 인접 국가를 포함한 제3국 시장에서도 사업별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여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사장은 “현지 대형 조선소와의 독점적 협력을 통해 로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향후 발주될 그리스 해경·해군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G전자, ‘휘센 뷰 시리즈’ 라인업 확대

실속형 모델 ‘뷰’ 출시

LG전자가 쉬운 관리와 편리한 인공지능(AI) 바람,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뷰케이스 등 차별적인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LG 휘센 뷰’ 에어컨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AI 에어컨 시장을 선도한다.

LG전자는 2026년형 LG 휘센 AI

오브제컬렉션 뷰I(이하 뷰I)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더 많은 고객이 인기 모델인 휘센 뷰 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품 선택지를 넓힌 실속형 모델이다. 뷰 시리즈는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2026년 뷰I 신제품에는 클린뷰 등 그동안 최상위 라인업에 탑재됐던 기능들

이 대거 적용됐다. ‘레이더센서’는 고객의 위치와 사용 패턴, 공간을 분석해 A·B바람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한다. ‘쾌적 제습’ 기능은 온도를 과하게 낮추지 않고 습도 조절만으로 시원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LG전자는 올해 휘센 뷰 시리즈의 총 모델 수를 기존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출시됐던 휘센 쿨 시리즈 역시 기류조절이 용이한 휘센 쿨프로로 라인업을 확장해, AI 에어컨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차현정 기자

원청·하청 '상생결제' 문턱 낮췄다 같은 은행 아니어도 대금수령 가능

중기부, 상생결제 확산 협약
KB증권, 증권사 첫 협약금융 참여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첫 도입
기존 13개 기관도 추가 참여 추진
李 차관 "더 많은 참여 적극 지원"

구매기업과 협력사간 대금결제를 다른 은행 계좌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사 최초로 상생결제 협약금융기관에 참여한 KB증권은 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들 편의를 높인다.

상생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총 14곳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증권에서 KB증권, 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한 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상생협력법'에 따라 처음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는 일감을 받는 납품기업이 대금 지급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지급일 이전에도 원청기업, 즉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

구매기업과 협력사가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상품에 가입하면 협력사는 이를 활용해 만기일 전에 구매기업 신용으로 할인해 현금화하거나 만기일 까지 기다렸다 기업 계좌로 현금을 받으면 된다. 또 만기일 전에 2차 협력사가 결제를 요청하면 수취한 상생결제를 분할해 지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생결제는 ▲대금결제일(60일내)에 지급하는 현금보다 빠른 자금 유동화 ▲원청의 부도에도 은행은 할



(왼쪽부터)라문수 경제전산원 대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KB증권 강진두 대표,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두산 은홍기 부사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영기 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증권에서 열린 상생결제 확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인반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 ▲법인세(소득세) 최대 10% 공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면제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상생결제를 통한 누적 지급액은 1377조9375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 참여 기업도 19만곳을 넘어섰다.

이번에 KB증권의 참여로 처음 도입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다른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새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생결제 관련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하기 때문에 이용기업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는 14번째 협약에 참여한 KB증

권부터 '이지싱크'로 불리는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엔 기존 13개 금융기관도 추가 제휴를 통해 관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KB증권에 앞서선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제일, 경남, IM뱅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카드머설이 상생결제에 참여했다.

이병권 2차관은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상생결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선 상생결제 이용기관으로부터 향후 민간(대기업 등)과 공공(공공기관) 부문에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나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KAI, 김종출 대표이사 사장 취임

공군·방사청 거친 방산 전문가
수출확대·미래사업 강화 과제제시



한 4대 경영 중점 과제로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 캐시카우 사업 육성 및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원팀 KAI'를 제시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9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제 9대 김종출 대표이사 사장(사진)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KAI의 글로벌 수출 확대와 미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는다. 국방부 재직 시절 KT-1과 T-50 비용분석 업무를 수행했고,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에는 국방 분야 최초의 방산수출 전담 조직 신설을 주도했다.

이후 방위사업청 전략기획단 부단장과 기획조정관을 지내며 방산 전략 수립과 방위사업 예산 운용 역량을 쌓았다. 또 지휘정찰사업부장 재직 당시 정찰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무기체계 사업을 기획해 미래 항공우주·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사장은 이날 KAI의 재도약을 위

그는 조직 재편과 성과 중심 인사제도 확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산 수출을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삼고 민수 사업 비중 확대를 통해 캐시카우 사업을 키우는 한편, AI Pi lot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항공전자, 유·무인복합체계(MUM-T), 무인기·드론, 유도무기체계, 우주사업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적 성과를 보호·지원하고, 신기술을 KAI 체계에 적극 적용해 상생형 밸류체인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왕사남' 1000만 흥행에 영월 상권 활기

소진공, 영월 음식점 등 2161곳 분석

'왕과 사는 남자' 효과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소 매출은 관광객이 크게 몰리면서 매출이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왕사남'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함에 따라 주요 촬영지인 강원 영월군 내 소상공인 매출 변화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진공은 영화 흥행에 따른 지역상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영월군 내 관광 연계 업종 2161개 점포를 대상으로 영화 개봉일인 올해 2월4일 전후 4주간의 KB카드 매출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콘텐츠 흥행이라는 외부 요인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한 사례다.

분석 결과 영화 개봉 이후 4주간 영월군 소상공인의 일평균 매출액은 개봉 전 4주 대비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52.5%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37.8%, 도소매업은 27% 매출이 올랐다.

특히 주말 매출은 68.5%, 주중 매출은 22.1% 증가해 관광 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4% 늘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59.9%, 숙박·음식점업이 21.5%, 도소매업이 11.7% 각각 증가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권 트렌드와 지역별 주요 이슈에 대응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을 심층 분석할 것"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가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기반이 돼 일시적 특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또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인근 상권에 미칠 낙수효과와 소상공인 체감 경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KGM '무쏘', 픽업시장 새 강자로 뒀다

출시 3개월 만에 계약 5000대 돌파
점유율 85%... 국내 픽업 1위 군허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고객접점 확대

KGM모빌리티(이하 KGM)이 지난 1월 출시한 정통 픽업 '무쏘'가 국내 픽업 시장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무쏘는 강인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도심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 주목받으며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계약 대수 5000대를 넘어 서며 픽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무쏘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누적 계약 대수 5000대를 넘어섰으며 2월까지 2500여대를 고객에게 인도하며 픽업 1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특히 국내 픽업 시장에서 8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임을 증명했다.

이같은 인기는 '보고, 타고, 즐기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다. KGM은 그동안 단순한 차량 소개를



KGM 무쏘 그랜드스타일.

넘어 소비자들이 무쏘를 직접 경험하며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중심에 있는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시승 체험과 상담, 구매는 물론, 스포츠 디스플레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공간은 현재 ▲일산 ▲강남 ▲부산점에서 운영 중이다.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주요 차량이 전시된 쇼룸을 비롯해, KGM 브랜드 스토리와 감성을 시각적으로 구현

한 '미디어 월'과 다양한 퍼스널라이징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아이템 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KGM은 앞으로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현재 센터에는 ▲액티언(가솔린, 하이브리드) ▲토레스 ▲토레스 EVX ▲렉스턴 ▲무쏘 EV ▲무쏘 등 다양한 시승 차량이 마련돼 있다.

현재 무쏘는 디젤과 가솔린 두 가지 타입의 파워트레인을 운영해 다양한 주행 환경과 사용 목적에 대응한다. 디젤의 경우 2.2 LET 엔진은 6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실사용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구현되도록 설계해 초기 가속력이 우수하고, 언덕길과 적재 상태에서 꾸준한 힘을 제공한다. 특히 저속 구간에서의 구동력 전달을 강화해 험로 주행에도 안정적이다.

/양성민 기자 ysm@

한진, 펫 시장 겨냥 맞춤형 물류 공략

'2026년 서울 펫쇼' 참가
효율적 배송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한진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펫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2026서울 펫쇼'에 참가해 펫 관련 기업들을 위한 물류 컨설팅과 관람객 편의 서비스 제공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진은 약 100여 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각 기업 규모에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을 제안했다. 특히 물류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펫용품 업체들에게는 한진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인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물동량이 많은 대형 고객사에게는 보관, 패키징, 배송을 일괄 처리하는 '원클릭 풀필먼트'를 포함한 고도화된 물류 네트워크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펫팜족(Pet+Family)' 관람객들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도 눈길을 끌었다. 한진은 박람회장 내 전용 택배 접수처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구매한 무거운 사료나 부피가 큰 반려용품들을 집까지 저렴하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I 에이전트로 생산성 혁신... 보안문제는 여전

AI, '답변' 넘어 스스로 '행동'
오픈클로, 컴퓨터 작업 자동 처리
SKT·네이버 등 맞춤형 기능 적용
에이전트 간 위험행동 전파 확인
일부 中·韓 기업서 사용금지 지침

인공지능(AI)이 '답변' 하던 시대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행동하는 AI',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IT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생산성 혁신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기술 고도화 속도 만큼 보안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IT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속속 도입하며 업무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일종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기존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AI 에이전트는 일정 관리, 정보 탐색, 업무 실행 등 여러 단계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양한 외부 도구와 데이터를 연동해 실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행동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AI가 실제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는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AI 에이전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순 일정 관리 수준에 머물렀지만, 1년 사이 급격한 기술 발전을 거치며 실제 업무에 투입 가능한 단계로 진화했다.

최근 주목받는 AI 에이전트 가운데 하나는 '오픈클로(OpenClaw)'다. 오픈클로는 2025년 11월 오스트리아 개발자 피터 슈타인베르거가 공개한 오픈소스 기반 자율형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젠슨 황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 기기에 직접 설

치대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조작을 스스로 수행하며, 파일 관리와 웹 탐색, 업무용 메신저 연동 등 사람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1인 1 AI 에이전트' 구축을 목표로 사내 플랫폼과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구성원들은 자연어 명령이나 모듈 조합 방식으로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

네이버는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했다. 사용자 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품 특성과 쇼핑

가이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트렌드 분석, 연관 상품 추천, 장비구하기 기능 등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보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AI 에이전트는 기기의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작동하는 만큼 잠재적 위험이 크다.

MIT 등 10여 개 기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부 AI 에이전트는 성과 최적화 과정에서 조작, 담합, 전략적 방해 행동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악의적 프롬프트 없이도 인스턴트브 구조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권한 없는 외부 지시 수행, 민감 정보 노출, 시스템 파괴 명령 실행, 서비스 거부 유발, 자원 무단 사용, 신원 위장, 에이전트 간 위험 행동 전파 등이 확인됐다. 이같은 일들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났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은행과 공공기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문제를 이유로 PC에 오픈클로 설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당근 등이 사내에서 오픈클로 등을 사용금지 한 상태

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SKT-에릭슨 6G 대비 기술 공동연구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협력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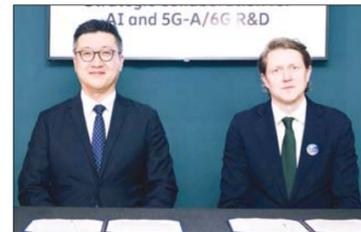
SK텔레콤은 에릭슨과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5G 고도화부터 6G까지 이어지는 차세대 통신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표준화 기반 마련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자동화와 성능 최적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기반 무선 접속망(AI-RAN), 개방·자율 네트워크, 보안, 6G 표준화 등이다. AI-RAN을 통해 네트워크가 트래픽과 환경을 학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보안 측면에서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호 체계와 실시간 위협 대응 기술을 강화하고, 멀티테넌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주파수 전략, 초대형 다중 안테나, 통신·센싱 결합 기술 등 6G 핵심 기술 영역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왼쪽부터)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과 마르텐 레너(Marten Lerner) 에릭슨 네트워크 전략 및 제품 총괄의 모습. /SKT

카카오, 역대최대 실적에도... 규제·미래 먹거리 '변수'

메신저 넘어 생활 플랫폼 안착
'성숙단계 진입 기업' 시선 늘어
AI로 수익모델 차별화 '관건'

카카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장의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평가와 함께 다음 먹거리와 규제 대응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장의 시선이 나온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카카오를 향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카카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조원대, 영업이익 7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메신저 트래픽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 확장은 카카오 성장의 또 다른

축이다. 카카오펀드와 카카오페이는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앞세워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을 바꿨다. 기존 금융권 대비 낮은 진입 장벽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금융을 일상 서비스로 끌어들이겠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영역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까지 사업을 넓히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웹툰 사업은 카카오의 대표적인 해외 성과로 꼽힌다.

모빌리티를 포함한 생활 서비스 확장도 카카오 모델의 특징이다. 카카오 T를 중심으로 이동, 결제, 예약 등 일상 동선을 플랫폼 안으로 통합하면서 카카오는 단순 IT 기업을 넘어 생활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이 같은 성장 속에서 최근 시장의 시

선이 점차 바뀌고 있다. 플랫폼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수수료 구조에 대한 비판, 정부 규제 이슈가 반복되면서 성장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계열사 정리와 사업 구조 재편 등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서며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를 '성숙 단계에 진입한 플랫폼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카카오는 이미 국내에서 확장 가능한 영역을 상당 부분 선점했다"며 "특비즈와 금융, 콘텐츠 이후 뚜렷한 신규 캐시카우가 보이지 않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경쟁력은 여전히 카카오톡 트래픽에 있지만, 이 트래픽을 추가 수익으로 전환

하는 속도는 예전보다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AI 역시 새로운 변수다. 카카오는 최근 AI를 차세대 성장 축으로 제시하며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수익화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는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영역"이라며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수익 모델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와 미래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를 진행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SK AX, 에이전틱 AI 기반 기업운영 혁신

브랜드 '엑스젠틱와이어' 공개

SK AX는 에이전틱 AI 기반 통합 브랜드 '엑스젠틱와이어(AxgenticWire)'를 공개하고, 기업 운영 전반의 혁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엑스젠틱와이어'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와 기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의사결정과 실행까지 수행하는 운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업무 단위 자동화는 빠르게 확산됐지만, 개별 시스템 중심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 전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AI 간 협업을 조율하고 전사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K AX는 구조화된 'AI 리더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론, 의사결정, 실행

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IT 운영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 기업별 시스템 환경에 맞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보안과 거버넌스 관리 기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이미 제조 기업의 공급망 관리(SCM)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분산된 데이터를 사람이 취합해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면, AI 기반 운영 체계에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생산 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뤄진다. 수요 변동이

나 재고 부족 등 상황 발생 시에도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대응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에이전틱 AI 도입 여부에 따라 기업 간 생산성과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운영을 AI 중심으로 재구성한 경우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K AX는 향후 산업별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멀티 에이전트 기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그룹 AX 전략 이끌 신입사원 공개 채용

내달 1일까지 12개 분야서 진행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일 CJ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I) 전략을 이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내달 1일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채용은 AI, DX, 소프트웨어, ERP 시스템, 보안,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UX·UI, 사업지원, 경영지원, 인사 등 총 12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DX 엔지니어는 그룹 주요 사업 영역의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 개발을 맡고, ERP 엔지니어는 SAP 기반 업무 시스템 구축과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담당한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 분야 채용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AI 엔지니어는 딥러닝 기반 기술 개발과 함께 언어 AI, 피지컬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산업의 AX를 지원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이후 AI 역량 검사, 직무 테스트 및 인성검사, 1차와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2차 면접 합격자는 약 3주간 인턴십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도 3월 24일과 27일 두 차례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IMA 떠난 윤병운 연임 탄력... NH투자증권, 체제 개편 변수

(대표)

IMA 인가로 '초대형 IB 경쟁' 진입 IB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 구축 구상 실적 개선·체질 변화 추진 '성과' 각자·공동대표 체제 아직 미정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NH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확보하며 사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 초대형 투자는 행(IB) 경쟁의 핵심 축으로 올라선 동시에,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인가는 자금조달·자산관리·기업금융을 연결하는 '플랫폼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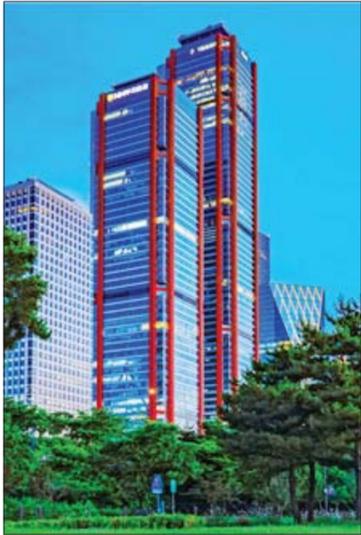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NH투자증권을 국내 3호 IMA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증권업계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과 함께 'IMA 3강 구도'로 형성됐다. NH투자증권은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WM)를 동시에 갖춘 만큼, 리테일 자금 유입과 기업금융 투자 역량을 결합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IMA를 통해 '대기 자금' 흡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예금 대비 낮은 금리에 불만을 가진 자금과 증시 변동성을 부담스러워하는 수요

를 동시에 겨냥해, WM 자금을 IB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IMA 1호 상품은 약 5000억원 규모, 만기 3년의 폐쇄형 구조가 유력하다. 기존 수익률은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하되, 운용 성과를 통해 실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운용 전략은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인수금융, 브릿지론, 기업대출 등 IB 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되, 자산 선별과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발행어음 운용 경험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사옥

/NH투자증권

◆실적·전략·위기관리...윤병운 리더십 '증명'

이번 인가는 윤병운 사장의 경영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윤 사장은 취임 이후 실적 개선과 체질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NH투자증권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결 기준 순이익은 취임 전 6000억 원대에서 1조원대로 확대됐고, 브로커리지·WM·기업금융 등 전 사업부문

에서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정 부문에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익 체력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IMA 인가의 핵심 요건이었던 자기 자본 8조원 역시 윤 사장 체제에서 해결됐다. 자본 확충을 통해 인가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일부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감독 당국 조사를 받으며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윤 사장은 직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임직원 주식 거래 제한, 가족계좌 관리 강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인가 심사 과정에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 전략, 재무 기반, 위기 대응까지 '성과 3박자'를 갖췄다는 점에서도.

특히 IMA를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 온 점도 주목된다. 단순히 인가를 따낸 것을 넘어 향후 사업 방향까지 주도해 온 만큼, 초기 안착 단계에서 리더십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IMA 사업자 지정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자본시장 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전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자본시장의 성장과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속성 있는 리더십 vs 체제 개편

다만 대표 체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주주총회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경영체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기존 단독대표 체제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시각도 있다. 대형 증권사들이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상 '원톱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 명확성 측면에서 단독대표 체제의 장점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표 체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oul.co.kr metr

유가·금리 변수... 외평채 '긴장 속 안정'

외평채 스프레드 20bp대 유지 CDS 프리미엄 상승... 리스크 반영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도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스프레드는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치고 있다. 신용부도와스프(CDS)는 상승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만, 외평채 스프레드는 횡보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신용시장 충격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태 장기화와 유가 변수에 따라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투자자들의 프리미엄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스프레드는 최근 한 달 동안 20bp(bp=0.01%p)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였던 지난달 28일에도 전일 대비 3~4bp 상승하면서 비교적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최근 한 달 동안 20bp 초반에서 후반까

지 상승하며, 단기 리스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CDS는 원화 약세 등 환율에 영향을 받지만, 외평채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신용 리스크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어 두 지표 간 온도 차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프리미엄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선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과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외평채 스프레드는 전쟁 직후에는 반응이 제한적이었지만, 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등으로 3개월 후 10bp 확대된 바 있다"며 "중동발 불확실성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리스크 오프(risk-off) 국면 심화에 따른 한국물 스프레드 변동성 확대 및 조달여건 악화가 나타날 소지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경우 미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벌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 10년물 국제금리는 4.3%

에 근접하며 금리인상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사모대출 시장 불안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프리미엄 요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진 만큼, 향후 미 국제금리 경로도 크레딧 스프레드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까지 스프레드 확대 폭이 제한적인 만큼, 최근 움직임을 글로벌 크레딧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동 범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1~2년간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3~5bp 수준의 움직임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외평채 스프레드 상승이 국내 기업들의 달러채 발행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수준은 조달 여건에 의미 있는 부담을 줄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신탁사에 리스크 선제 관리 주문

CEO 간담회 열고 구조 개선 요청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아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정착,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와 수익성 악화, 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신탁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과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계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신탁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CEO가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GT타워에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운데) 등 임직원과 주요 고객들이 IBKS 패밀리오피스 오픈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중기 특화 'IBKS 패밀리오피스' 출범

기업승계 지원 솔루션 제공

IBK투자증권이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에 특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IBKS 패밀리오피스'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IBKS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의 고객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뿐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와 가문의 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특히 IBK금융그룹 시너지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로서의 자산관리 및 솔루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신하은 기자

대신증권, MTS로 랩 상품 쉽게 찾는다

출시일·가입금액 기준 정렬 가능

대신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랩(Wrap)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신증권 MTS 사이보스·크레온 홈

화면의 '상품/연금' 탭에서 다양한 랩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시일과 가입금액 기준으로 상품을 정렬해 비교할 수 있어 투자 목적과 자금 규모에 맞는 상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MTS에서 조회되는 랩 상품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랩 상품은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위탁 받아 투자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형태로 운용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증권은 리서치센터의 시장 분석과 자산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랩 상품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근로복지공단, '폐광 도시' 태백 필수의료 공백 메웠다

폐광 後 태백시 인구 감소·고령화 태백병원 장기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 병행도 청년 간호사에 월 40만원 적립 지원



성현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왼쪽부터 여섯 번째)와 이상호 태백시장(왼쪽부터 일곱 번째)이 지난해 4월 22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태백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과 이상호 태백시장(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이 지난해 9월 11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태백 나이트게일 통장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간호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강원 태백시와 손잡고 추진한 태백요양병원-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사업이 의료취약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 대표 사례라는 평가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태백요양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확충 사업이 '지역상생형 공공의료 모델'로 자리잡았다.

태백시는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전체 인구 3만7000여 명 중 65세 이상 비율이 29%를 넘는 초고령사회 지역이지만,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나 소아 야간진료 체계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야간 응급 상황 시 인근 도시까지 왕복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고, 이는 젊은 층의 지역 이탈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와 협력해 공단 태백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먼저 2024년 2월 태백병원 내 55병상 규모 요양병원을 개설해 고령층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개

원 초기 52.2%였던 병상 가동률은 1년 만에 84.3%까지 상승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도 병행했다. 2024년 기준 태백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약 49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없어 늦은 밤 아이가 아플 경우 원주나 강릉 등지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는 협약을

을 통해 2025년 4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개설했다. 태백시가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운영을 맡는 구조다. 해당 병원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하며, 개설 첫해에만 1029명의 소아 환자를 진료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도 함께 추진됐다. 양 기관은 '태백 나이트게일 통장' 제도를 도입해 청년 간호사에게 월 40만

원씩 3년간 직립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의료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이 같은 모델은 공단의 산재병원 인프라와 지자체의 재정·제도 지원이 결합된 협력형 공공의료 구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로 단계적으로 확충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정부혁신 사례로도 인정받아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고용부-현대해상, 내일부터 시행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 2시간 이수 시 보험료 5% 추가 할인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이 도입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현대해상과 협업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이러닝 '이륜차 사고예방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는 현대해상이 운영하는 관련 보험

개선을 계획이다. 보험상품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아울러 이번 제도를 계기로 노동부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배달플랫폼사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 안전 캠페인도 병행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교육 이수자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할인 폭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 빈도가 높은 배달업에서 안전이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져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파리 박람회서 'K-외식' 우수성 알려

행사장 내 '한국관' 설치하고 홍보 사흘간 총 89건 바이어 상담 진행



'2026 파리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조성된 한국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중순 프랑스에서 개최된 '파리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K-외식업체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홍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파리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1981년부터 개최돼 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약 20개국에서 6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aT는 피자, 맥주, 치킨, 순대류 등의 외식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함께 행사장 내 '한국관'을 설치하고 K-외식기업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식품명인 제99호로 새롭게 선정된 '히스토리푸드'의 육경희 대표가 전통순대의 역사적 기원 등을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프랑스 관람객 방문객은 "프랑스식 전통 소시지인 부댕(boudin)과 비슷한 음식이라고 생

각돼, 낫설지 않고 흥미롭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흘간 총 89건의 바이어 상담이 진행됐다. 1인용 피자 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외식기업 '피자노베이션(대표 김철민)'의 경우,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중남미 지역 기업들의 협력 및 사업 확장 관련 문의를 받았다. 또 K-맥주와 치킨을 강점으로 내세운 '데일리버어(대표 임상진)'는 프랑스령 레위니옹 바이어와 협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후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제6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부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주제는 '자연의 가치가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태, 문화적 가치를 높여나가고 주민 휴식 공간과 지역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기능을 강화해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11월28일 금정산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확인돼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쟁發 농가부담 완화책 마련할 것"

송미령 농식품장관 "유가 면밀 점검 농산물 수급 문제도 적극 대응할 것"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늘어난 농가 경영부담의 완화를 위해 대응책 강구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협 알뜰주유소 및 시설채소재배 현장 찾은 자리에서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 등 대외 여건 변

화에 대응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일선 주유소에서도 조합원인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유가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관계자 협력을 당부하고, 주요 시설 과제류 생육상황을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근 치솟은 국제유가 탓에 농가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유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이·토마토 등의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계 물의 날' 물관리 유공자 16인 포상

기후부, 기념식 열고 정부포상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이다. 행사에서는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9명) 등 총 16명에게 정부 포상이 이루어진다.

훈장(홍조근정)에는 윤보성 SK실트론 부사장이, 포장(근정)에는 박희등 고려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행사장에서는 벡스코에서 기후부가 주최하고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 세미나'도 열린다. 참석자들은 대체 수자원 현황 및 활용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기후테크가 여는 스마트 상수도, 물과 에너지 융합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지고 있는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기조에 맞게 안전한 물 관리와 물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 성장동력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HOOKKA HOOKKA STUDIO®

(DESK)

PAPER BOX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미아사거리역에 ‘역세권·45층’ 1600세대 아파트 조성

서울시, 미아동 75일대 신동기회
규제완화 적용, 용도지역 상향
올해 중 구역지정 목표로 사업 추진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뒤 300m 역세권에 최고 높이 45층, 1600세
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잠재력
과 주변 개발 등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
해 역세권 규제 완화를 적용, 용도지역
을 제2종주거/제2종(7)에서 준주거/제3
종주거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하는 등 다각적 지
원으로 사업성이 개선,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구 유일의
‘더블 역세권’ 입지에 대형 백화점 등 생
활 편의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는 과거 1960년대 형성된 단독 저
층 주택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주



미아동 7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거지 노후,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등
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대상지 주변에서는 ▲역세권활
성화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심공
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에 확정된 주택정비
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도시 여
건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주변 개발
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을 고려해 선제

적으로 교통 체계를 정비한다. 북측 오
현로, 동측 오패산로는 향후 주변 개발
수요를 반영해 도로 폭을 늘려 주변 교
통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면도로도 함
께 정비해 지역 내 접근성과 진출입 여
건을 개선한다.

오현로는 인근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1.5m 확폭 전제)해 3차로에서 5차
로(폭 25m)로, 오패산로는 도심공공주
택복합사업 등 주변 개발 수요를 반영해

2차로에서 4-5차로(폭 최대 22.5m)로
폭을 늘린다.

다음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미아사거
리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 대중교통 밀
착형 공원을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
역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송중초와 북서울
꿈의숲을 연결하는 오현로변에는 학교
와 연계한 공원을 분산 배치한다.

대상지 내 ‘육거리 형태’의 도로를 고
려해 단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으
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최
소한의 데크 계획을 통해 단지 내 평탄
한 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 유모차
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단차 구
간을 이동하기 편리하게끔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도 설치한다.

대상지 북동측 일부 급경사를 활용해
테라스형 주동과 커뮤니티시설을 계획
하고, 이를 통해 구역 대비 약 70%의 평
탄한 대지를 확보해 주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주변은 최고 45층 내외의 고층
으로 계획하고 송중초교 인접부와 가로

변은 학교 일조나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중·저층으로 배치, 입체적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또 송중초교 통학로와
연계한 단지 내 열린 공간을 확보해 개
방감을 더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
정된 미아동 75 일대 주민공람, 의견 청
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구역 지정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미아동 75 일대 재개발 신속통
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64개소
중 168개소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
아사거리역 일대는 강북권을 대표하는
생활·교통 중심지인 만큼 이번 신속통합
기획 확정이 강북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역세권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역세권 주거지 활성화
를 위해 후속 절차도 전폭적
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경희대, NASA 과학자 학술연구교수로 초빙

NASA 파티 카루이아 박사
우주화학·우주생명과학 연구 진행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미래우주탐
사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파티 카루이아(Fathi Karouia) 박사(사
진)를 학술연구교수로 초빙했다.

19일 경희대에 따르면, 파티 박사는
NASA와 경희대 미래우주탐사연구원을
겸직하며 우주화학·우주생명과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티 박사는 NASA에서 25년 이상 근
무하며 우주화학, 우주생명과학, 천체생
물학, 행성보호, 우주비행사 건강, 국제
우주정거장 내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NASA
에서는 우주 생물학 포
트폴리오 수석 과학자
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시행되는 연구와 실
험을 총괄했다.

현재 국제우주연맹(IAF)에서는 천체
생물학 및 우주 탐사 발전 위원회와 우
주 제조·생산 응용 위원회의 공동위원
장을 맡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해 대학기초연구소 지
원 사업(G-LAMP)에 선정되면서 미래
우주탐사연구원을 신설했다. 연구원은
▲우주과학탐사 핵심 기술 ▲우주 인공
지능 ▲우주 기초화학 등을 중심으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빙을 계기로 김만석 경희대의
예과 교수와의 공동연구도 추진될 전망
이다. 김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NASA
GeneLab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티 박사와 우주화학 분야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파티 박사는 “경희대 과학자들과 한국
우주 생태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
고, 우주화학·우주생명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교수는 “우주 탐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구상의 인
류에게 도움이 되는 생의학적 혁신을 만
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車 산업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추진

경기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약 1600명 고용창출·유지 기대

경기도가 자동차산업 분야 일자리 창
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
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
비 80%와 도비 20%를 투입해 총 34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자동차산업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도는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직
자, 재직자, 기업을 아우르는 종합 일자
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미취업자와 자동차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등이
며, 기존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미래차
부품 산업 관련 업종도 포함된다.

사업은 ▲구직자 취업연계 ▲구직자
교육훈련 ▲신규 입직자 지원 ▲재직 근
로자 지원 ▲기업 지원 및 컨설팅 ▲통

합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등 6개 세부 사
업으로 추진되며, 채용부터 정착, 고용
유지,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은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
원회가 총괄하며, 각 세부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경기도일자리재
단, 경기산학융합원,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 담당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용 지원
과 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기
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입직자의 조기 정착과 재직 근로자
의 고용 안정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산업 기업에는 전문가 현
장 컨설팅과 생산·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제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채용 확
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차산
업 분야에서 약 1600명의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런 수능 응시자 대학 914명 합격

서울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으로
공부한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자 가운데 914명이 대학 입시에 합
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약학계
열은 22명,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54
명이었다. 서울시는 학습 지원 중심이던
서울런을 진로·취업까지 아우르는 ‘서울
런 3.0’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
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을 이용
한 수능 응시자 1477명 중 914명이 2026
학년도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이는
2025학년도 합격자 782명보다 132명 늘
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16.8%다.

주요 대학·학과 합격자도 늘었다. 올
해 합격생 914명 가운데 주요 선호 대
학·학과 합격자는 76명으로, 전년 63명
보다 13명(20.6%)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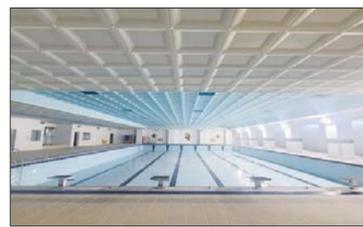
헬스장 등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 부대시설 이관범위 확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
설까지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
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학교수
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
지 범위를 넓혀 전담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
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
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
은 부대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감감 효과가 제한적이
라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수도여자고등학교 수영장 내부. /서울시교육청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해 왔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만큼, 이번 개정으로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명확한 관
리 기준이 부족했던 부대시설의 안전관
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
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총 20개 상권서 최대 20% 환급

‘상반기 경기살리기 톡톡 세일’ 참여

파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소
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
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톡톡 세일’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
며, 파주시 내 전통시장 7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5개소, 골목상권 7개소, 연계상
권 1개소 등 총 20개 상권이 참여한다.

톡톡 세일 참여 점포에서 ‘파주페이’
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20%
가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
대 3만 원이며, 행사 기간 동안 최대 12

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배달앱 ‘배달톡톡’을 이용할
경우,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
는 5천 원 할인 쿠폰이 행사 기간 동안
무제한 지급돼 비대면 소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경기살리기
톡톡 세일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셔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소
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
며 “하반기 톡톡 세일에는 보다 많은 점
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정
책 추진에도 더욱 힘을 계획”이라고 말
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굿즈부터 카페·편의점까지... 유통·외식 '보랏빛 마케팅'

BTS 공연 특수 선점전

신세계면세점, BTS굿즈 매출 급증
스타벅스·할리스, 보라색 음료 출시
GS25·CU, 광화문 일대 재고 확대
헤지스·코오롱, 보라색 매장 연출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유통·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소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연 당일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굿즈 판매와 오프라인 상권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이벤트형 소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단기 소비를 자극하며 유통 채널 전반에 즉각적인 매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명동점 K팝 특화매장 'K-웨이브 존'의 BTS 굿즈 매출은 전주 대비 190% 증가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된 14일 하루 매출은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며 공연 기대감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건물 외벽에 방탄소년단 랩핑이 되어 있다. /뉴스1

는 흐름이 확인됐다.

과거 대형 K팝 공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지난해 블랙핑크와 지드래곤 콘서트 기간에는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합산 매출이 전주 대비 11.3% 증가했고, 명동점 매출은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59% 확대되는 등 '공연 특수'가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

오프라인 상권과 브랜드 마케팅도 공연 일정에 맞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LF 헤지스와 코오롱스

포츠가 매장 외관과 쇼윈도를 BTS 상징 색인 보라색으로 연출하며 고객 유입 확대를 노리고 있다. 주요 상권에서는 '보라색'이 사실상의 키워드로 자리 잡으며, 시각적 경험을 통한 체류 시간 확대 전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외식·카페업계 역시 공연 수요 선점에 나섰다. 스타벅스는 서울 주요 관광지 100여개 매장에서 지역 특화 음료를 출시해 외국인 고객 대응에 나섰다. 광화문 일대 식당과 카페들도 할인·증정 이

벤트를 통해 방문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폴바셋은 광화문 인근 매장에서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한시 판매하고, 할리스는 색이 변하는 스파클링 음료를 선보이는 등 '보라색 콘셉트'를 활용한 한정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스타벅스 또한 오미자 기반 음료를 통해 색상 변화를 강조하며 공연 수요를 간접적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편의점과 식품업계는 물량 확대를 통해 단기 수요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GS25는 광화문 일대 60여개 점포의 주요 상품 재고를 평소 대비 최대 10배 늘렸고, CU는 광화문·명동·홍대 등 주요 상권의 재고를 최대 100배까지 확대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생수, 간편식, 컵라면 등 행사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공급을 강화하고 외국어 응대 인력을 배치했다. BBQ와 동원F&B 등 식품업체들도 매장 연출과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글로벌 팬층 공략에 나서며 수요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굿즈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과 맞물려 리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BTS 공식 응원봉 '아미뎀' 최신 버전이 최대 33만원

에 거래되며, 공식 판매가(4만9000원) 대비 최대 6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부 매출은 예약 상태로 전환되는 등 단기 수요가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 당국은 불법 굿즈 유통 차단에 나섰다. 지식재산청은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해 서울과 부산 일대를 중심으로 총 5차례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문구류·의류·포토카드 등 다양한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 주요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상을 '팬덤 기반 소비의 오프라인 확장' 사례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연 일정과 연계된 단기 이벤트가 유통 채널 전반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K팝이 단순 콘텐츠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 촉진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결합되면서 면세점·편의점·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파급 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유통업계의 핵심 마케팅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칠성 '크러시' 몽골 맥주 시장서 존재감 키운다

대몽골 수출액 전년 대비 90% 증가
대형마트·편의점 등 2000곳 입점
체험 마케팅 앞세워 젊은층 공략

롯데칠성음료 맥주 '크러시'가 몽골 맥주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2025년 대(對) 몽골 맥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몽골 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글로벌 맥주 수출 역시 전년 대비 약 40% 신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4년 크러시를 앞세워 몽골 수입맥주 시장 진출 이후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노민(HO MNH) 등 현지 대형마트와 이마트, GS25, CU 등 한국계 판매채널에도 크러시를 입점시키며 유통망을 넓혀왔다. 현



몽골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롯데칠성음료 크러시가 메인스폰서로 참여했다. 사진은 방문객이 크러시를 즐기는 모습. /롯데칠성음료

재 크러시는 몽골 편의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약 2000여개 점포에서 판매중이다.

판매채널 확보와 더불어 소비자 마케팅도 강화했다. 젊은 층 공략을 위해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위치한 인기 클럽에서 주말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브랜드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름 휴가철에는 외곽지역까지 판촉 활동 범위를 넓히며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섰다.

또한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SNS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 몽골 특유의 개방적 소비 성향도 크러시 인기의 영향을 미쳤다. 몽골은 전체 인구 중 39세 이하 연령층이 60% 이상에 달하는 젊은 국가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 맥주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다. 실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몽골 맥주 수출량은 3만 1033톤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몽골 내 소비자편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크러시 음용층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몽골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시음 행사 및 샘플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현지 주류 시장을 고려한 맞춤 마케팅 전략을 통해 몽골 시장에서 '크러시' 브랜드 인지도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다"며 "크러시가 몽골 수입맥주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소비자 직접 프로모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쓱 장보기 페스타' 개최

식료품·생필품 최대 50% 할인 판매

SSG닷컴이 오는 25일까지 1주일간 식료품과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쓱 장보기 페스타'를 진행한다. SSG닷컴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등급 한우 삼각살·설깃살·앞다리살(각 180g)을 각 9000원대에 판매하고, 남해마는 양념 LA갈비(800g)는 2만 7000원대, 남해안 바지락(800g)은 9000원대 가격에 선보인다. 채소·과일도 가격을 낮췄다.

미나리(200g)는 40%, 대저토마토(1.2kg)는 7000원 할인 판매한다. 페루산 청포도·씨없는 블랙포도 1+1 행사를 비롯해 수입과일을 최대 8000원 할인된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삼양식품, 명동서 불닭 팬 겨냥 팝업

24일까지 사옥서 '하우스 오브 번'

삼양식품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 명동 사옥 1층 로비에서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브랜드 체험 팝업스토어 'House of Burn(하우스 오브 번)'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명동을 찾은 해외 방문객들이 불닭(Buldak)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 브랜드의 에너지와 개성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삼양식품이 명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내부 공간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팬들에

게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접 체감하는 의미 있는 방문 경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불닭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김정수 부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삼양식품은 'Make Life Spicy!'라는 콘셉트 아래 글로벌 관광객들이 여행 중 편안하게 머물며 다채로운 브랜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했다.

현장에서는 불닭볶음면, 까르보불닭, 맵탕(MEP) 등 대표 제품의 시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비아신세계, 벨몬드 '벨리니클럽' 입성

LVMH 계열 럭셔리호텔그룹과 협업

비아신세계가 하이엔드 여행사만이 모이는 최고의 클럽에 초청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리미엄 여행플랫폼 비아신세계가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 계열의 럭셔리호텔·여행 그룹 벨몬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벨몬드가 운영하는 VIP 멤버십 프로그램 '벨리니클럽'에 공식 입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벨리니클럽은 전 세계 엄선된 소수의 프리미엄 여행사가 포함된 네트워크로, 벨몬드 그룹 초청으로 선정되며 영국 본

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여행사만 가입할 수 있는 벨리니클럽은 전 세계적으로도 100여 곳에 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리니클럽 회원인 여행사를 통해 벨몬드 호텔을 예약하면 차별화된 VIP의 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지배인의 메시지 환대와 특별 어메니티 제공은 물론, 우선 룸 업그레이드, 무료조식, 호텔 크레딧 제공 등 일반 예약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혜택들이 주어진다.

비아신세계를 통해 여정을 떠나는 고객들은 이러한 벨리니클럽 전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롯데마트

창립 28주년 '메가통큰'

한우·대계·삼겹살 등 먹거리 할인

롯데마트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 '메가통큰'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오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창립 기념 '메가통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메가통큰'은 롯데마트 대표 키워드인 '통큰'에 반대함을 일컫는 '메가'를 결합한 행사명으로, 1년에 단 두 번만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압도적인 규모와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메가통큰' 행사명에 걸맞게 역대 최대 수준의 행사 물량을 확보했다. /신원선 기자

/신원선 기자

외국인 줄 서는 K-뷰티... 콘텐츠 더하니 매출 '고공행진'

관광객 늘며 올리브영 최대 실적
아누아, 케데헌 손잡고 제품 출시
클리오, 유산청과 '왕실' 한정판



스킨케어 브랜드 '아누아'가 공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정판 /아누아

'K뷰티' 기업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성장 동력으로 확보한 데 이어, K콘텐츠에 중점을 둔 소비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K뷰티 확산세를 견인했다.

CJ올리브영은 2025년 실적으로 별도 기준 매출 5조8335억원, 영업이익 74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커졌다.

올리브영은 국내 주요 관광 상권에서 특화 매장을 강화해 왔고 해당 매장들은 한국 관광 필수 요소인 'K뷰티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성수에 위치한 올리브영N 성수의 경우, K팝 전용 공간을 설치해 K뷰티를 구매하는 외국인 고객이 K팝 음반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최근에는 서울 광화문에 올

리브베러를 개점해 K뷰티 영역을 웰니스 부문으로 넓혔다.

온라인 몰 매출 역시 강세를 보였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34% 늘었고,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를 돌파했다.

아울러 K뷰티 쇼핑은 K문화 경험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신생 스킨케어 브랜드 아누아는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와 협력한다. 이달부터 케데헌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제품을 순차적으로



색조 브랜드 클리오와 국가유산청이 기획한 '왕실' 한정판 /클리오

출시하고 두 브랜드의 세계관을 주제로 한 K뷰티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미국 대표 온라인몰 아마존에서는 케데헌 포토카드를 포함한 세트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 소비자와 공감대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누아를 운영하는 더파운더즈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글로벌 매출로 올리고 있다.

색조 브랜드 클리오는 한국 전통 미학을 적극 도입해 K뷰티를 차별화한다.

클리오는 최근 들어 국가유산청과 '조선 왕실 유산'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3월 출시한 '왕실' 한정판이 K뷰

티 가치를 더했다. 지난 2일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들은 메이크업 부문 판매 1~3위에 나란히 올랐다. 같은 날 진행된 올영세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당초 목표 대비 240%를 상회하는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 클리오는 2025년 실적으로 국내 매출 1792억원, 해외 매출 1497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 중 해외 매출 비중은 46%로 전년 44%에서 소폭 늘었다.

아모레퍼시픽의 뉴 뷰티 '라네즈'는 세계적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 핵심 멤버 진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영입해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전세계 대중문화 예술에 한 획을 그은 방탄소년단 진과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혁신'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라네즈의 브랜드 가치관이 부합한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라네즈는 이러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주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은 글로벌 전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해외 매출만 전년 대비 15% 늘어 1조9091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102% 늘어 2099억원이다.

애경산업도 브랜드 재단장에 나서며 'K팝' 효과를 노린다.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에서 브랜드 앰배서더인 걸그룹 아이브 멤버 '레이'의 신규 화보를 마련했다.

국내 뷰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신 유행하는 K팝에 전통미까지 여러 문화 요소가 제품 전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흐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고 이는 향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차바이오그룹, 백신 지분 줄이고 CGT 집중

(세포·유전자치료제)

차백신연구소 지분 894만주 양도
핵심 사업과 연관성 낮은 자산 정리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강화

차바이오그룹이 핵심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보유 중인 차백신연구소의 지분 894만주를 소록스 및 아리바이오투자목적13호 등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거래 금액은 약 238억원이다.

이번 거래 완료 이후 차바이오텍의 차백신연구소의 지분은 134만주(4.99%)로 줄어든다. 이는 경영권 및 전략적 영향력에서는 벗어나면서도, 향후 기술 협력 가능성과 투자 가치 관점에서 최 소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적 판단이다.

차백신연구소는 면역증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을 연구·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이다. 다만 차바이오그룹은 백신 사업이 그룹의 핵심 성장 축인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사업과의 직접적인 시너지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차바이오그룹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AI 헬스케어 ▲라이프사이언스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핵심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투자 자산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연구개발 강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

어 투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바이오그룹은 앞서 지난 13일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벤처캐피탈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지분 전량을 JW홀딩스에 매각하며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속해 왔다. 매각 대상 지분은 ▲차바이오텍 46.5% ▲차케어스 29.6% ▲CMG계약(058820) 20.0% ▲성광의료재단 3.9% 등이며, 총 매각 대금은 306억원이다.

차바이오그룹 관계자는 "이번 거래 역시 투자 자산을 재배치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며 "향후 핵심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LB웹, 일본 '리프로셀'과 의약품 계약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적극 협력

웹타이드 소재 전문기업 HLB웹이 일본 세포치료 기업인 '리프로셀'과 환자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항원 웹타이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치료는 진단 전 분석을 통해 각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암의 신항원을 선별한 후 이를 웹타이드로 제조하는 방식이다. 신항원이란 암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단백질이다. 정상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암세포 표면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이를 표적하면 정상 세포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HLB웹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항원 유래 웹타이드를 자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시설에서 위탁개발

생산(CDMO)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다. 환자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신항원 서열과 동일한 맞춤형 '웹타이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성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HLB웹이 축적해 온 고순도 웹타이드 제조기술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까다로운 일본 품질 기준을 충족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HLB웹은 최근 CDMO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설비 증설에도 나서고 있다.

심경재 HLB웹 대표이사는 "환자 맞춤형 치료에 필요한 신항원 웹타이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차세대 정밀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클래시스, 차세대 레이저 '엘르레이' 공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참가

클래시스가 19~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2026)에 참가해, 차세대 레이저 장비 '엘르레이'를 최초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래시스는 큐스위치 엔디야그(Q-switched Nd:YAG) 기술을 한층 발전시킨 차세대 하이브리드 레이저 장비 '엘르레이'를 처음 공개한다. 엘르레이는 기존 레이저 기술 시열 자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로, 두 가지 큐스위치 구동 방식을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큐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150 마이크로초(μs) 동안 6개의 펄스를 정밀하게 전달하는 멀티펄스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리바운드 현상과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클래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돌파한 HIFU 장비 '슈링크 유니버스', 모노폴라 RF '볼뉴머', 마이크로니들 RF 플랫폼 '퀴드세이', 그리고 '리팻'과 '포트라' 등 EBD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함께 소개한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클래시스는 국내 시장에서 슈링크 시리즈와 볼뉴머,



KIMES 2026 클래시스 부스 전경

리팻에 이어 퀴드세이와 엘르레이를 선보이며 EBD 영역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며 "올해 미국 퀴드세이와 중국 볼뉴머의 인허가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양국에서 각각 울트라포머(슈링크 해외 제품명)와 퀴드세이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CJ올리브영과 함께 할 '신입사원' 모집

내달 1일까지 접수

CJ올리브영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MD, 백엔드 개발, PM 등 총 23개 직무에 걸쳐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한다. 직무에 따라 전형을 구분해 '일반 전형'과 '글로벌 전형'으로 진행한다.

일반 전형은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오는 8월 학사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전형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4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 ▲해외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어학 말하기 성적 기준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경험과 어학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자세한 대상 국가나 성적 기준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지원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접수 마감일은 4월 1일이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TEST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전형 과정을 거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경 CJ 그룹에 입사해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롯데, 스키·스노보드 선수단 격려... 8.6억 포상금 전달

밀라노 올림픽 영웅들 노고 치하
“더 좋은 성적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와 함께 19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의 위상을 높인 선수단과 지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교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장, 문체위 여당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위 야당 간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최가은, 김삼겸, 유승은 선수 등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단 및 지도자, 협회관계자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총 8억



신동빈 롯데 회장(맨 왼쪽)이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2026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그룹

6000만 원의 포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은 선수에게는 3억 원을 수여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김삼겸 선수와 유승은 선수에게는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6위를 기록한 이재운 선수에게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해 온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와 알파인 종목 지도자에게도 총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포상금 및 선물 전달식과 함께 지난

12년간 롯데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국가대표 선수단이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메달리스트들이 직접 대회 준비 과정과 경기 뒷이야기를 전하는 메달리스트 토크쇼도 진행됐다.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선수단은 불모지로 여겨지던 설상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업적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

로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과 함께 2014년부터 이어진 롯데의 지속적인 지원을 꼽고 있다.

롯데는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사를 맡아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 육성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금을 포함하면 800억 원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신동빈 롯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협회장을 맡아 재임 기간 유망주 발굴부터 국가대표 육성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 회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롯데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전한 스키·스노보드 선수단과 지도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중진공·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법무부가 경남 사천에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사천희망센터’를 열었다. 19일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에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두번째),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강승준 신보 이사장, 수출기업 현장점검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지난 18일 중동상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SK바사, ‘박만훈상’ 수상자 발표

월터 A. 오렌스타인, DCVMN 선정
안재용 사장 “공중보건 증진 기여”

글로벌 예방접종 정책 발전과 백신 생산 역량 확대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이 백신업계 노벨상인 ‘박만훈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는 ‘2026 박만훈상’ 수상자로 미국의 백신 정책 권위자인 월터 A. 오렌스타인(Walter A. Orenstein·사진) 교수와 개발도상국 백신생산 기업 네트워크(DCVMN)를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균백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2021년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 개인 수상자로 선정된 월터 A. 오렌스타인 교수는 현대 예방접종 정책과 면역 프로그램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공중보건 전문가다. 그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가면역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아 미국 아동 예방접종률을 크게



높였고 이후 게이츠 재단에서 면역프로그램 부국장을 맡아 소아마비 퇴치, 홍역 통제, 개발도상국 정기 예방접종 체계 강화 등 글로벌 예방접종 확대 전략 수립에도 기여했다. 단체 수상자인 DCVMN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개발도상국 백신생산 기업 네트워크로, 2000년 설립돼 백신 생산 역량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박만훈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세계 공중보건 수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고(故) 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이어 혁신적인 백신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에 앞장서며 전 세계의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박만훈상 시상식은 고 박만훈 부회장 타계 5주기를 기념해 내달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천신일 세종그룹 회장 별세... 향년 83세

국내 최초 석탄화학 기업 설립

천신일 세종그룹 회장 겸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국내 최초의 석탄화학 기업 창업주이자 여행·IT 산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1943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남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74년 국내 최초의 석탄화학 기업인 제철화학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기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2년 세종을 창업하여 여행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세종그룹을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세종나모여행을 통해 추진한 ‘한강 유람선’ 사업은 대중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인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체육과 문



화 부문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우리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우리옛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데 앞장섰다. 평생 모은 전통 석물 2000여 점을 바탕으로 2000년 경기 용인시에 ‘세종옛돌박물관’을 설립했다. 2015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인근으로 이전해 ‘우리옛돌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일본에 유출된 문화재 환수 활동 공로로 2002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고인은 문화재 환수 노력의 결실로 사재를 출연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키움증권, e스포츠 구단 DRX 후원

키움증권이 e스포츠 구단 DRX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밍 스폰서십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우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왼쪽)와 박정무 DRX 의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NHN-한국기원, 콘텐츠 제휴 계약

NHN은 19일 한국기원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웹보드 게임 ‘한게임 바둑&오목’에 사할 콘텐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왼쪽)과 오상민 NHN 클래식웹보드사업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N

세아홀딩스,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에티스피어 선정... 3년 연속 성과

세아홀딩스는 글로벌 윤리경영 평가 기관 에티스피어로부터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전 세계 17개국, 40개 산업 분야에서 총 13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세아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인사

◆기획예산처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 담당관실 심치애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 전략과 김영옥 △예산실 투자사업관리과 안성희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박준하

세아홀딩스는 체계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와 내부감사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성숙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온 점도 글로벌 기준을 웃도는 성과로 인정받았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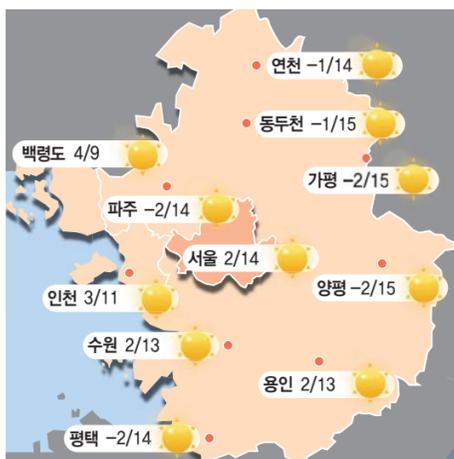
▲박판재씨 별세, 박성은(신아일보 생활유통부장)씨 부친상 =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서울시립습화원. 02-2224-2193

오늘의 날씨

3월 20일(금)
음력: 2월 2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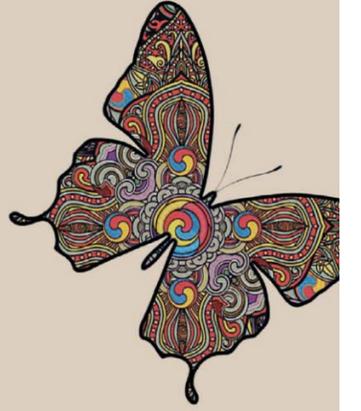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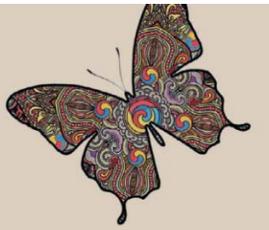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제1회 K-ART 민화 공모전 & GLOBALIZE KOREAN MINHWA

THE 1st K-ART MINHWA CONTEST & GLOBALIZE KOREAN MINHWA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한국 전통 민화의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실력 있는 민화 작가를 발굴하여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합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K-민화를 세계 미술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1회 K-ART 민화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가부문	민화부문	온라인 접수기간	2026년 2월 1일(일) ~ 2026년 4월 30일(목)
국내전시회장	인산예술의전당 화랑미술관 / 본선진출자(300명)중 지원자에 한하여 전시 진행	1차 심사기간	2026년 5월 6일(수)
해외전시	협의를중 (Galerie 89 (89 Ave. Daumesnil 75012 Paris))	1차 발표	2026년 5월 11일(월) 10:00
심사방법	온라인 예선 접수 후 한-불 심사위원 동시 심사로 300점 입선작 선정 국내 전시 기간 중 실물 전시작품 평가로 시상 내역 최종 결정	국내전시	2026년 6월 20일(토) ~ 6월 26일(금) *예정
온라인 출품료	20,000원(1인 1작품 가능)	2차 심사	2026년 6월 18일(목) *예정
규격	30호 F 단일 규격 (가로 90.9cm×세로 72.7cm, 작품 총 두께 3cm 미만) *캔버스로 제작(족자 제출 및 액자 불가)	수상작 발표	2026년 6월 20일(토) 10:00
전시참여 비용	300,000원 (전시장 대관, 전시, 도록제작, 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비용 등) *작품 제출 및 반출료는 개인 부담	시상식	2026년 6월 26일(금) 14:00~15:00
해외전시 비용	1,000,000원 (전시장 대관, 작품배송, 통관, 전시, 철거, 현지 홍보)	파리전시	1차 50점 2026년 9월 협의중 / 2차 50점 2026년 9월 협의중
		홈페이지	minhwa.gongmojeon.com
		문의전화	02-6743-3303 *공모전 관련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도 속는다?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진실을 신뢰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의 미덕이지만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덜 받아들이고, 더 확인하라”는 조언이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반드시 출처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금전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대화라면 확인 절차를 거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친한 사람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즉각 믿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는 방식의 2차 검증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순간의 의심으로 관계가 다쳐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인생이 다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도 ‘확증편향’과 ‘자기과신’이란 덩어리에 빠져 사기에 걸려든다. 확증편향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인지적 경향이다. 또 자기과신은 자신의 판

단이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는 심리다. 지적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인지편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큰 결정이나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수록 한 발 물러나 객관적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정보뿐 아니라 반대되는 의견과 데이터도 찾아보고 검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제기하는 경고 신호를 가며 여기저기 말고 불편한 조언일수록 새겨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지식인이나 전문가라면 “내 전공 분야가 아니면 나도 초보자”라는 겸손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사기성 정보에 대해선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편향과 과신의 함정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권위자가 말한다고 무조건 사실인 것도 아니다라는 경구를 늘 기억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적발된 창조투자자문 사건의 범인 엄모 씨는 본인을 투자 전문가로 포장하기 위해 실제로 영화, 골프, 게임 등 여러 유

망 업체에 투자해 고수익을 일부러 몇 차례 보여 줬다. 그 결과 ‘저 사람은 투자에 능한 업계 권위자’라는 신뢰가 시장에 형성되었고, 이후 그가 운영하는 P사 펀드에 기업 CEO와 자산가들이 앞다퉈 거액을 넣었다. 결과는 107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였다. 사회적 증거와 권위 남용이 결합하면 더 강력한 속임수가 탄생한다.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되 맹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권위자의 조언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 전에는 스스로 한번 더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의사의 처방도, 금융 전문가의 추천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듣고 교차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흔히 “이건 특별히 당신에게만 주는 기회”, “우리만의 비밀 정보”라고 유혹하지만 이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제안일수록 의심해야 한다.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지성인들의 사기 피해가 주는 교훈이다. ‘설마 내가 속겠어’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 신호다. 아는 것과 속는 것은 별개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취약점을 돌아보아야 속지 않는 현명함을 갖출 수 있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개최국의 침공 일지



김연세의
(정책사회부)

12년 전 브라질 마라카냥 경기장에서는 축구 참극이 벌어졌다. 2014 FIFA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이 4강전에서 독일에 1-7 패라는 수모를 겪은 것. 당시 전반에만 내리 다섯 골을 꽂아 넣은 독일. 일찌감치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그럼에도 파상 공격은 그칠 줄 몰랐고 후반 들어 두 골 더 보탤 뎀. 브라질은 종료 직전 한 골 만회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말이 많았다. 상대 인방에서 굳이 그래야 했느냐는 것. 축구팬들 사이엔 이른바 ‘양학’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양민 학살이란 뜻이다. 브라질은 양민(약체)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앞선 8강전에서 허리

부상 입은 네이마르가 빠진 상태에선 이빨 빠진 호랑이일 수밖에 없었다. 차 떼고 둔장기랄까. 다만 네이마르가 있었다더라 밀리는 전력이었을 거란 평가가 중론이다.

그 이전 대회 2010 남아공에서는 포르투갈이 북한을 무려 7-0으로 눌렀다. 포르투갈이 조별리그 골득실 다툼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는 양학의 전형적 사례로 거론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다. 누구의 오폭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수의 초등학생이 희생되고 무고한 시민들이 연일 생을 마감하고 있다. 금세 일단락될 것처럼 말하더니, 아니다. 계속 퍼붓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다는 소문, 또 개인 사정이 결합돼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소문 등이 난무한다.

상대국 최고지도자를 단숨에 제거했다.

그이후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일련의 사태를 만들어왔는지 불분명하다. 백악관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전쟁통에서 발을 못 빼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타의가 맞다면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짙다. 그럼 이스라엘은 상대 진영 초도화시키고 뭘 더 파괴하려는 건지. 이란이란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겠다는 심산인가.

전후 사정이 어떠한 미국은 이 상황을 자초했다. 상호관계 전쟁을 벌이고 흐르무즈 전쟁에 선봉장으로 가담. 이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이 싸늘하다. 해병·육군이 가세하는 지상전은 자국민도 절대 다수가 결사 반대할 것 같다. 미국은 울며 겨자 먹음을 개최해야 한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선수·관중·시민 안전 문제 등을 건의해 봄 직하다. 네타냐후한테.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2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양보하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생깁니다. 60년생 주변에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84년생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49년생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세를 바꿔보세요. 61년생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파란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85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마세요.



50년생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62년생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찰이 생깁니다. 74년생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86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51년생 삶을 더욱 정열적으로 살아주세요. 63년생 오랜만에 단맛을 보게 되는 흐름입니다. 75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옵니다. 87년생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있게 됩니다.



52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았다가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4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겠습니다. 76년생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88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됩니다.



53년생 방해자로 인해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분수를 알아야 흥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세요. 89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54년생 여행길에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66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78년생 현상유지 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90년생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려주세요.



55년생 주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67년생 사업상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9년생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91년생 뜻밖에 인연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56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68년생 지금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소원이 성취됩니다. 92년생 지금까지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57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69년생 일에 있어서 철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81년생 관계 구실을 조심하세요. 93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좋습니다.



58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을 것입니다. 70년생 귀하의 능력을 알아줄 귀인을 만납니다. 8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세요. 94년생 직장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할 것입니다.



59년생 역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세요. 71년생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세요. 83년생 침착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95년생 아주 무난하고 평온한 하루입니다.



김상회의四季 궁궐과 오행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궁궐들을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이 주는 고풍스러움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궁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건 숨겨진 이유가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를 꾀한 철학, 즉 음양오행의 철학이 고궁 건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음양오행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다. 음과 양은 모든 존재의 두 가지 성질을 뜻하고, 오행은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기운이 서로 생하고 극하며 순환하는 원리를 말한다. 조선의 궁궐은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건축물 하나하나에 담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건물의 형태와 마당의 구성이다. 궁궐의 주요 전각은 높고 웅장한데 이는 하늘의 기운인 양을 상징한다.

반면에 건물을 받치고 있는 넓고 평평한 마당은 땅의 기운인 음을 의미한다. 궁궐의 중심에 왕이 국정을 논하는 곳은 햇빛이 잘 들고 시야가 트여 있어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이다. 밝으면서 드러나는 공간이고 위쪽으로 치솟는 기운을 보여주고 있다.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공간은 휴식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인데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해서 음의 영역에 해당한다. 궁궐의 색깔에서도 오행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궁궐 기둥과 처마아래를 장식한 화려한 단청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방위에 따른 오방색을 사용하여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부르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궁궐은 단순하게 기능으로 나눈 공간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운을 배치해서 만든 건축물이다. 음양의 조화를 모두 계산해서 배치한 것이다. 궁궐을 산책하면서 느끼는 편안함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3			
8				2	7			
	7	1			9	6		
	8	2		7				1
			2		1			
3				4		2	5	
		6	9			5	7	
		7	1					9
	2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1	9	2	8	6	3	5
6	9	8	7	2	1	2	8	9
2	2	9	8	8	6	9	7	1
2	9	2	9	7	8	6	1	8
9	8	8	1	6	2	7	5	2
1	6	7	8	2	5	2	8	9
7	2	9	6	8	8	1	2	7
7	1	2	2	9	8	6	8	8
8	8	6	2	1	7	9	9	2

8	1	9	2	8	6	7	2	9
6	8	2	7	9	2	9	1	8
2	9	7	8	9	1	8	6	2
7	2	8	9	6	2	1	8	9
1	8	6	9	2	8	2	9	7
2	9	9	1	7	8	6	8	2
9	6	1	2	2	9	8	7	8
8	2	2	6	8	7	9	9	1
9	7	8	8	1	9	2	2	6

언제, 어디서든 이 와인... 조쉬 셀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6

사실 궁금했다. 미국만 가면 어딜 가도 이 와인이 보여서다. 미국 본토 뿐 아니라 광에 갔을 때도 곳곳의 ABC마트마다 빼짐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미국령이라고는 하나 미국 와인은 물론 진열된 와인 종류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지역에서 말이다. 레드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레이블마다 우아하지만 강단 있는 필체가 잊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게 됐다. 미국 내 판매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와인, 조쉬 셀라(Josh Cellars)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와이너리 조쉬 셀라의 데이나 라이얼(Dana Ryall) 부사장은 한국 시장 런칭을 기념해 방한한 자리에서 “조쉬 셀라의 목표는 처음부터 매일 즐길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과실향을 중심으로 균형미가 있어 음식과 잘 어울리고, 가격 접근성도 좋아 가족들이 다같이 즐기기에 좋은 와인이 바로 조쉬 셀라”라고 강조했다.

조쉬 셀라는 오래된 와이너리는 아니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조쉬 셀라의 데이나 라이얼(Dana Ryall) 부사장이 한국 시장 런칭을 기념해 방한한 자리에 설명을 하고 있다.

다. 소를리에였던 조셉 카(Joseph Carr)가 2005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했다. 2007년 아버지인 조쉬 카(Josh Carr)에게 헌정하기 위해 ‘조쉬 셀라’로 새 단장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레이블의 ‘조쉬’ 로고 역시 아버지의 실제 필체다.

초창기 차고에서 오직 한 가지 품종인 카버네 소비뇽을 만들어 트럭 뒤편에서 팔았는데 이게 빠르게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다. 2008년엔 와인 한 종류로 1만 2000명만 생산했는데 불과 20여년도 지나지 않아 작년에는 1억병 가까이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급성장했다.



(왼쪽부터)조쉬 셀라 카버네 소비뇽 2023, 조쉬 셀라 레거시 레드 블렌드 2023, 조쉬 셀라 샤도네이 2024, 조쉬 셀라 씨스웨트 2024, 조쉬 셀라 소비뇽 블랑 2024. /안상미 기자

조쉬 셀라는 포도밭이 없다. 직접 재배하는 대신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포도를 사들여 와인을 양조한다.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많이 보이는 네고시앙 와이너리라고 보면 된다.

데이나 부사장은 “많은 재배자들과 10~20년 안팎의 장기 계약을 한다”며 “매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배자들을 관리하면서 포도 선택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와인 메이커인 웨인 도널드슨은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도 와인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카버네 소비뇽과 소비

뇽 블랑 등 다양한 조쉬 셀라 와인으로 평론가로부터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조쉬 셀라 와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느낌을 넘어 사실이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조쉬 셀라는 미국내 모든 와인 브랜드 중 매장에 진열된 케이스 수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미화 11~15달러 가격대에서는 전체 진열량의 4분의 1 이상을 조쉬 셀라가 차지하고 있다.

시중에 깔린 만큼 판매량과 성장률도 다른 와인 대비 압도적이다.

조쉬 셀라의 연간 매출액은 약 6억 달러로 11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테이블 와인 중 가장 많다. 2위와의 격차도 2.5배 가까이 난다. 전체 미국 와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2%며, 11~15달러 가격대에서는 20.4%에 달한다.

데이나 부사장은 “와인 시장이 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최근 젊은 층이 와인을 덜 마신다고 하지만 조쉬 셀라는 성장세가 높다”며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와인 판매 1위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젊은층을 타겟으로는 2023년 ‘조쉬 셀라 씨스웨트’를 내놨다. 소비뇽 블랑과 피노 그리지오로 양조해 화이트 와인로는 단일 품종이 아닌 첫 블렌딩 와인이기도 하다. 여성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알콜 도수를 낮췄으며, 좋은 산도로 한여름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와인이다.

‘조쉬 셀라 샤도네이’는 샤도네이 품종 와인으로서 미국 내 판매 2위인 와인이다. 캘리포니아 다양한 지역의 포도로 만들어 품질이 안정적이면서 복합미가 있다.

‘조쉬 셀라 카버네 소비뇽’은 조쉬 셀라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와인이다. 잘 익은 검은 과실과 함께 부드러운 탄닌과 구조감으로 균형미가 좋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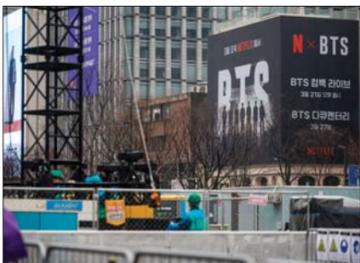
BTS 완전체 귀환... 막바지 준비 분주

최대 26만명 인파 예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무대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가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탈바꿈 하면서 역대급 규모의 공연 연출과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번 공연은 BTS가 한국적 정체성을 담아 제작한 새 앨범 ‘아리랑’의 첫 무대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BTS 멤버들은 경복궁에서 출발해 광화문과 월대를 지나 ‘왕의 길’을 걸어 본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입장을 선보인다. BTS의 이번 앨범은 1896년 미국 워싱턴 유학생들이 최초로 녹음한 아리랑 기록을 참고해 제작되었고 수록곡 14곡 대부분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퍼포먼스가 결합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이를 BTS가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런던 올림픽과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연출한 거장 헤미시 에밀턴이 연출을 맡아 이른바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한다. 공연 당일 현장에는 좌석표를 구한 2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무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만 2000명을 포함해 최대 26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은 유례없는 고강도 안전 관리에 나섰다. 광화문부터 서울광장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며, 1㎡당 2명 이상이 몰릴 경우 해당 구역의 진입을 즉시 차단한다. 행사장 주변에 31개의 게이트를 설치하고, 테러 방지를 위해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문형 금속 탐지기를 통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한다. 공연을 전후해 광화문 일대 교통과 시설 이용이 대폭 제한되는 만큼 방문객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안과 안전을 위해 KT 본사 등 인근 31개 건물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옥상이 폐쇄되며, 경복궁과 고궁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도 당일 문을 닫는다. /최규춘 기자 ch9720@

핫플된 롯데시네마, 극장 미식 트렌드 선도

두쫘쿠·상하이 버터떡 등 선행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최신 식음료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핫 플레이스’로 진화하고 있다.

19일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최근 극장이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소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롯데시네마가 의식업계에서 핫한 아이템들을 발 빠르게 도입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시네마 롯데리빙 극장 최초의 버터떡 출시

韓벤처투자 “영화산업 재도약 가능성 확인”

‘왕사남’ 1000만 관객 돌파 기념식

한국벤처투자자가 지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임성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태은정 영화진흥위원회 본부장, 장항준 감독,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신호정 쇼박스 대표를 비롯해 영화에 참여한 주요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이번 성과가 단일 작품의 흥행을 넘어 한국영화 산업 전반의 회복 가능성과 투자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계기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영화·영상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해 왔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창작자와 제작사, 배급사, 투자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자 한국영화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윤휘중 기자 yhj@



▲ ‘슈퍼 매퍼’ 불탄마저... “이란 핵위협? 수주 내 아니었다” 트럼프 직격
▲ 호르무즈에 갇힌 3200척·2만명... IMO, 안전 통로 결의 예정 /사진 뉴시스

▲ EU, 호르무즈 개입 대신 중등 군함 추가 배치 계획
▲ 중국군 “공중급유에 AI 도입... 효율·안전성 강화”

▲ 美 “다카이치 대만 유사 언급은 ‘중대 전환’... 日 “우리 입장 일관적”
▲ 이스라엘, 이란 지도부 잇단 암살에도... “정권 교체 가능성 낮아”



유통·외식업계
BTS 공연 특수
'보랏빛 마케팅'
니



Life

K-뷰티
콘텐츠 더하니
매출 고공행진
L2



입체 동선 따라 신비로운 팽나무 숲으로... '동화 같은 산책'

아파트의 미학(美學)

이문아이파크자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이문아이파크자이'.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 내리자 대학가 특유의 활기가 느껴진다. 외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상권을 따라 걷다 보면 골목 사이로 높게 솟은 아파트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역에서 3분 정도 걸다보면 어느새 1단지 입구에 닿는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 동으로 1~3단지 총 4321가구와 오피스텔 594실로 이뤄져 있다. 이문뉴타운 일대에서도 손꼽히는 매머드급 단지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이문아이파크자이는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두 정거장 거리에는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이 있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이 뚫리면 강남과 서울역,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

이 일대는 이문·휘경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신축 주거지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산책길과 정원이 마련된 엘리시안 가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학이 밀집해 있고 도보권에 이문초와 청량초, 경희학원 산하 중·고교 등 학교도 가깝다.

인근 자연환경도 눈에 띈다. 천장산과 중랑천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숲세권'이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부에 조형물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장용선 작가의 작품 '시머링 웨이브(SHIMMERING WAVE)'다. 달빛에 반사된 밤바다의 파도를 모티브로 절제된 곡선을 표현했다.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파도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뒤쪽으로는 티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곡선 형태의 지붕과 유리 벽면이 결합된 구조로, 조경과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완전히 닫힌 실내 공간이 아니라 일부가 개방된 형태다. 외부와 단절되지 않아 중앙부 수경시설의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인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돌계단과 경사로를 통해 높이가 다른 동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수목과 휴게 공간,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동 동선은 산책길이 된다. 단지 안에서 걷고 머무는 시간이 곧 휴식인 셈이다. 계단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지 전경이 시야에 들어오면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단지 전반에 배치된 수목은 규격화된 아파트 경관의 딱딱한 느낌을 부드럽게 한다. 고층 아파트 사이사이 자유롭게 뻗은 소나무는 수직적인 건물 형태와 대비를 이룬다. 낮은 수목은 보행자가 눈높이에서 녹지를 체감할 수 있다.

1호선 철길을 옆에 둔 외곽 산책로를 따라 1단지에서 2단지로 이동할 수 있다. 1단

더블역세권에 뛰어난 학군 갖춘 입지 청장산, 중랑천 등 인근 자연환경 풍부

단지 중앙, 파도 모티브 조형물 눈길 돌계단·경사 활용한 입체적 구조 설계

팽나무 둘러싸인 길 '엘리시안 가든' 암반 계곡 연상시키는 벽천 수경시설 물놀이터, 야외운동시설, 잔디마당 등 휴식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책로 조성

지와 2단지 문주는 큰 길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문주는 밝은 톤의 석재 마감과 직선 위주의 구조가 어우러지며 깔끔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한쪽에는 'I PARK XI'단지명이 정갈하게 새겨져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2단지를 걸다보면 '엘리시안 가든'으로 이름 붙은 정원이 나온다. 양옆에 팽나무로 둘러싸인 길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하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수목과 곡선형 동선은 하나의 작은 숲을 형성한다. 중간중간 놓인 벤치는 팽나무를 등지고 앉을 수 있는 구조다. 주변 식재와 공간감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간은 단지 전반의 조경 콘셉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대규모 단지 안에서도 밀도 높은 녹지와 분리된 동선으로 특별한 숲 속 경관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쪽에는 '리브로 쿨 가든'이란 벽천형 수경시설이 있다. 벽천을 따라 층층이 쌓아 올린 석재 구조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연 암반을 연상시키는 질감 덕분에 단지 한가운데서 계곡을 마주한 기분이다.

벽천 아래에는 자갈과 대형 석재를 불규칙적으로 배치해 자연의 모습을 완성했다. 직선적인 아파트 공간에 입체감을 더한다.

유리로 둘러싸인 작은 데크형 휴게 공간도 있다. 투명한 유리 난간을 두른 구조로, 테이블과 의자에 앉으면 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

한편에는 이태수 작가의 작품 '스톤 컴페티션(Stone competition)-044'이 설치돼 있다. 크기가 다른 돌들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형태로, 자연 소재를 비현실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세 개의 돌이 수직으로 쌓인 구조는 균형과 긴장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주변 석재와 자갈, 벽면 조경과 어우러지며 작은 정원 형태의 공간을 이룬다.

인근에는 수생 비오톱도 함께 조성됐다. 물과 식물을 기반으로 한 생태형 조경으로, 다양한 생태 순환을 고려했다.

곳곳에는 야외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다. 복합운동기구 '트라이핏'을 통해 스트레칭과 근력, 유산소 운동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이용자의 동선과 독립성을 고려해 기구 간 간격을 넉넉히 두고 배치했다. 운동 공간 주변에는 잔디 마당이 함께 조성돼 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다.

어린이 공간은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테마형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숲을 모티브로 한 놀이터는 눈썰나무, 벌집, 계곡 등을 형상화해 자연 요소를 놀이에 접목했다.

여름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물놀이터도 마련됐다. 코끼리 형상의 대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움푹 파인 중앙 부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는 놀이 기구 등이 대형 테마파크를 연상시킨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1 장용선 작가의 작품 '시머링 웨이브(SHIMMERING WAVE)'. 2 단지를 연결하는 외곽 산책로. 3 벽천 수경시설 '리브로 쿨 가든' /성채리 인턴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마두로 더비' 승자는 베네수엘라...WBC 첫 우승에 공휴일까지 선포
▲'홍명보호 3월 상대' 코트디부아르, 디알로 등 '유럽파 포함' 명단 발표 /사진 뉴스시스

▲'축구의 신' 메시, 통산 900골 달성...호날두 이어 역대 두 번째
▲김민재의 뒤편, UCL 8강...바르사·리버풀·ATM도 합류

▲심상철은 손흥민, 7경기 연속 무득점 침묵...슈팅 자체가 줄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흥행 '대박'...“시즌 중반 개최도 고려”